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12



추

하

지/역/사/의/학/사/원/합/회

1995년 12월호 첫발매 92.6.25. 부간 26호 발행인 최영숙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12



지/역/사/목/적/아/△/인/업/의

1995년 12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6호 발행인 최현숙

리얼 아이도우

21.20



<표지 사진>

새로운 시작의 한복판에 서서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들을 마무리한다.

언제나 시작은 두렵고 힘들지만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면.....

입이여 생각아 / 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을 축하하며

이미경

특집 / 5

독일탐방기(3)

박주현

기획특집 / 9

지탁연 창립 10주년 축하잔치

편집부

기획특집 / 12

지탁연 10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편집부

새날을 여는 사람들 / 14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범한 여대생이었겠지요? 편집부

한해를 마무리하며 / 16

사진으로 보는 지탁연의 1995년

편집부

기획 / 23

겨울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기획논단 / 25

지탁연,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황미혜

연장소식 / 29

제1회 실기강습회를 마치고

김향진

기획연재 / 31

물설고 낯설은 타향에서(2)

정희연

우리네 아이들

95.12월호

<통권 36호>

좋은 그림책 소개 / 39

오윤정 **아, 우리 기차에서 내려!**, [장갑]

글머당 / 43

꽃밭을놀이방 **탁아소별곡**

오래들의 목소리 / 45

강애란 사랑하는 지탁연 식구들을 다시 만나며

박정애 나의 동료, 나의 벗

김실이 지탁연 10주년을 맞이하며.....

다녀왔습니다 / 49

위양자 일본 연수에 참여하면서(1)

간접소식 / 60

만5세아 조기입학을 유보방침 철회하기로

우리 아이 마음놓고 맡길 순 없나요?

양귀이는 자비 / 68

시에를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보육계풍향 / 72

소식과 소식 / 77

편집부에서 / 79

일하며 생각하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을 축하하며

이미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탁연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탁연은 매우 소박하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보육운동 역사, 복지운동 역사, 여성운동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정부조차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가난한 노동자가족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모금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마련하면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80여개의 민간보육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는 조직체까지 건설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탁연의 자원보육교사들은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60-70년대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인간을 경시하고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함으로써 생긴 갖가지 모순들을 깨닫고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는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중심의 사회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80년대 운동 안에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탁연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양육은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수만개의 길이 있으며, 바로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는 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등입니다.

또한 지탁연 교사들의 이러한 철학과 실천, 헌신은 바로 우리나라 보육운동의 철학을 바로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탁연 운동의 영향에 따라 보육은 결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국가의 정책으로 지

원해야 하는 복지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199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 당시 저는 지탁연의 저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부나 유아교육 학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새마을유아원의 원장들이나 그 누가 반론을 펼치더라도 논쟁을 설득력있게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실천 속에서 올바른 보육운동, 보육정책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육운동은 외로운 운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누구든 이제 보육시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이제 저소득층에서만 아니라 사무 전문직, 판매직 여성들에게도 확대되었고, 잠재적 취업여성인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 내는데 지탁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제 변화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지탁연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가난한 부모님이 고생고생하여 자식을 잘 키워 놓고 난 뒤의 고민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자식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탁연이 앞으로의 과제도 잘 찾아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바르게 세우면 그 뜻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수없이 많이 있을테니까요. 이것이 지탁연의 철학이었지 않습니까?

10년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본회 10주년 축하잔치에서 이미경님께서 하셨던 축사의 내용입니다. 10년을 마무리하며, 올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특집

독일탐방기(3)

박주현 / 변호사

석진이(필자의 7살난 아들)는 독일에
서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뮌헨의 집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레오폴트 공원 안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
데, 교회의 집사님 한분을 통해 그 곳에
신청을 하였더니 학부모 대표와 면담할
시간을 정해주었다. 정해진 시간에 유치
원에 갔는데, 만6세반의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가 나와서 왜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
는지와 석진이의 여러가지 점에 대해 묻
고는, 유치원의 운영방식과 교육방침 등
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왜 유치원에 보내려는가의 질문
에 대해 내가 '독일에 대해 알게 하기 위
해서'라고 대답하였더니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가, 독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등
에 대해 다시 물었다(독일에서도 유치원
이 부족해서 지원자 중 엄마가 학생이거
나 아프거나 직장에 다닐 경우 우선권이
있다고 하였다). 내가 한국에서는 직업이
있었으나 독일에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일을 하는 것은 없고, 작은 아이를

돌보아야 하고 독일의 제도들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서 아마 독일아이들에게도 새로
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더니, 선생
님과 학부모 대표도 그 말에 수긍하는 듯
웃었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나중에 결과를 통지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엘리자베쓰라는 이름의 선생님은 굉장
히 성실하고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는
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두가지를 가르칩
니다'라며 교육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
었다. '한가지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
니다'. 나는 그 말을 국민교육헌장에 나
오는 그런 류의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니
하고 그 순간에는 가볍게 들었다. 그런데
일주일간 수업을 참관하면서(석진이가 잘
적응하는지 같이 보자고 선생님이 권유하
여서) 그의 교육관이 매우 실천적인 것이
있음과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었음을 깨달

우리 유치원에서는 두가지를 가르칩니다. 한가지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이지 않는 것입니다.

게 되었다.

우선 간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병 들
러왔으면,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
을 하거나 누구를 지적하여 이야기를 시
킨다. 한 아이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듣는다. 그리고 말
하던 아이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아이
가 말할 차례를 얻어 이야기를 계속한다.
선생님은 간식시간과 식사시간 내내 아이
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주선한다. 엘리자
베쓰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
게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게 하고 남
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법을 자연스
럽게 터득하게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
한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 자리
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
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으나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적하여 어떤 이야
기를 해보라고 강권하지도 않았다). 단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딴 짓을 하
거나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곧 주
의를 받았다.

유학갔다 온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생
각났다. 외국어를 들을 수 있으면 회화가
부족해도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

고 우스운 대목에서 웃고, 감탄할 때 감
탄사를 연발하고, 심각한 이야기에 진지
한 표정을 짓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참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화의 기본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독일
사람들은 어쩌나 남의 말을 경청하는지
그들에 대해 별 생각없이 불쑥불쑥 이야
기하였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은 어
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물어와 당황하고는 그 후로 말 한마디라
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유학생
의 말도 들었다.

독일에서는 두 가지 모욕적인 말이
'게으르다'는 것과 '솔직하지 못하다'라
는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골프나 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 집안
일을 남에게 맡겨두고 백화점 쇼핑하러
다니는 여자들, 김종필씨처럼 신문선담하
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 행간에 복
선과 암시를 깔아야만 그럴 듯한 화술이
거나 수준높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
들은 아마도 유럽에 가면 천박한 인간으
로 취급되기 십상이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진지하게 듣는 대화법을 배우기 보
다는 어른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말하면

건방지다고 야단 맞고,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서 눈치만 들어서 그런가, 솔직한 사람만 바보되었던 역사 때문인가. 우리 사회엔 공자의 비밀이 너무 많고, 모임에선 겉도는 대화가 난무하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솔직한 용기를 잃어버렸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60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달달 외우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어떤 좋은 생각이라도 극단적인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교육방침은 이러했다. 우선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고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무슨 규칙을 세워 외우게 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이들에게 갈등이 생기거나 싸우는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다가 만약 한 아이가 '선을 넘어서'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하면 그 순간에 개입하여 때린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물을 빼어놓았다.

석진이가 다니던 반은 우리나라 나이로 7살반이었는데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거의 없었고, 물론 유치원에서도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하루종일 공원 안에 있는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자전거 타고, 간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되면 선생님 부르는 소리에 들어서서 모두 손 씻고 식사를 한 다음 그릇을 부엌에 갖



석진이가 다니던 원현의 유치원 전경(↑)과, 유치원 옆마당에서 다니엘라와 함께 놀고 있는 석진이(←)

아이들은 하루종일 공원 안에 있는 오지원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떨어진 뱀을 잡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두고 당번인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식탁을 치우고 닦고, 또 밖에 나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개울을 만들기도 하고 떨어진 뱀을 잡기도 하고, 마당에 만들어놓은 배를 타고 놀기도 하고 건물 안의 체육장에서 미끄럼 타고 매트 위에서 구르고 놀다가 엘리자베스는 그 중 한 두명을 방으로 불러들여 공작을 시키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오후 휴식시간이 되면 방에 커튼을 치고 아이들은 쿠션을 깔고 안고 베고 편하게 자리잡고 엘리자베스가 책을 읽어준다. 등원시간은 9시부터 10시 사이 적당한 시간이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부모가 와서 선생님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다.

유치원의 전체 정원은 45명 정도였고, 석진이가 속한 반은 11명이었는데, 각 반에 정식 교사 한 명에 교사 자격을 위한 실습으로 나온 선생님이 상시 한 분이 있어서 2명이었고, 유치원 전체적으로 음식 담당 직원 한명, 청소담당 직원이 한 명 있었고, 간식준비와 건물 내부 청소는 학부모들이 당번을 정하여 담당하였다. 3주일에 한 번씩 학부모회의가 각 집에 돌아가면서 열렸고, 중요한 사항은 각 반의 학부모회의에서 보고되었고, 또 결정되었

다. 보육료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재정담당 학부모에게 직접 부쳤으며,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은 오로지 아이들의 인격형성,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조성, 아이들의 상황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 되었고, 특히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정신적인 여유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질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민주사회에 필요한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독일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말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인지 석진이 친구들도 이야기를 시켜보면 집중을 잘 하였고,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아는 것은 적어도 훨씬 어른스러웠다.

요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많이 발전하였으나,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교양은 아직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기획특집

지탁연 창립 10주년 축하잔치

편집부



지난 11월 26일 불광동에 자리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는, 멀리 부산과 광주, 전주 등지에서 부터 참석한 지탁연 식구들과 관계를 가져온 이들이 200여명 모인 가운데 지탁연의 지난 10년의 활동을 자축하고 이후의 새 출발을 힘차게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거의 은평구 민방위교육만을 실시해왔다는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는 때아닌 여성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다름 아닌 '지탁연 창립 10주년 축하잔치'.

1985년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준비를 하면서 부터 지금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있기 까지의 활동, 성과에 대한 나눔과 이후 전망에 대한 공유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고마

운 이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남미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반주단의 신나는 연주로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간의 활동성과와 이후 교사조직으로 다시 힘차게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최현숙 회장의 기념사가 있었고 그후 지탁연의 활동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이미경 여연 공동대표의 축사와 2대 회장으로 지탁연의 역사에 함께 했던 장현자 전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의 기념사와 축사, 격려사는 바로 우리 지탁연의 역사와 미래였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는 듯 [지탁연 1985-1995]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제작, 상영되어 다시 한번 지탁연의 끊임없이 분출되었던 열정과 활동들을 새삼 확인하며 그 저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사업을 기획, 세권의 책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행사당일에는 지탁연의 활동과정을 담은 [지역사회탁아소 10년 활동]이 발간되었고, 그의 발간예정인 [영아를 위한 능동적인 활동학습시리즈 1권(3권중)]과 [탁아소별곡(가제)]에 대한 소개, 출판팀 인사가 있었다.

지탁연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년을 꿋꿋하고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회원들의 열의와 애정이 밑받침이 되고 기둥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더불어 식구와 다름없이 지탁연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던 이들이 있었기에 보다 세련되고 보다 정리된 모습으로 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렇듯 우리 곁에 함께 하였던 다섯분 - 장미경, 박주현, 임재택, 김종해, 김덕환 - 들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우리 식구로 있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것은 바로 교사들의 눈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사대표로 무대에 오른 김실이 교사(안산 진달래동산)는 지탁연 교사로 지낸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지탁연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는데 김실이 교사의 울음으로 지켜보던 다른 교사들이 멍달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1부 기념식을 마치고는 남미영 부회장의 폐회선언과 함께 등등 울리는 풍물소리.

2부 사회자와 교사들로 이루어진 길놀이패는 대강당 안을 몇바퀴 돈 다음 무대에 올라 2부의 시작을 알렸다.

2부 사회는 전직 회원이었던 김경옥씨와 현직 회원인 고정미씨의 공동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지탁연 식구들의 축하마당으로 봉천지역과 자활대표자회의, 전북지역, 전직교사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한 감사패를 받았던 이들과 이들을 소개한 회원들, 그리고 전현직 회장단들이 보여주었던 도전15곡은, 노래실력을 떠나 숨은 끼를 발산해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 특히 임혜숙 초대회장의 즉흥무는 모든 이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다.

2부의 준비된 순서 후에는 로비에서 다과회를 가지는 것으로 이날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전현직 교사들과 자원활동가, 지탁연과 그간 관계했던 이들 총 200여명이 함께 자리했던 이날 행사는 그동안 지탁연이 뒤도 돌아볼 틈 없이 앞으로 뛰어왔던 10년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의 활동방향(교사조직의 전망)을 밝혔다. 이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석한 이들은 비록 돌아가면서 피곤한 몸일지라도 10년을 함께 일구어왔던 선후배, 동료들과의 만남에 가슴 벅찬 감동과 힘찬 약속들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10주

일시: 1995년 11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연국



기획특집

지탁연 10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편집부 위임

10주년 축하잔치 행사장에는 참석자들의 축하말을 적어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되었던 축하말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의 세월 10년!

그 사랑 날로 날로 더욱 깊어지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온

지탁연이 앞으로도 곳곳하게 한국 보육역사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지탁연 10독 맞이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한해지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지탁연...

10살 만큼 가능성 있는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머뭇머뭇 발전해서 20주년 행사때는

더 한속한(?) 모습이 되기를 바래요.

내 청춘을 다 바쳐 함께 할 지탁연,

늘 사랑합니다.

지탁연은 계속 되어야 한다.

발전하는 지탁연, 축하합니다.

10년이 지나니 많은 것이 역시 변하는군요.
이 변화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10년이나 강산이 여러번 변했을 시간입니다.
바쁘네요. 이 장을 곳곳이 지켜주셨던 선배님, 그리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살아요.
10주년을 자축하며
이 땅의 보육운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교사조직으로
거듭나길.....

벌써... 역사가가네?

축하합니다.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략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할지 얼마 안 되는데

같이 있다는게 좋길래요.

좋은 날 좋은 꿈 꾸는 사람들이

여기 모두 모여

너무나 행복해요.

지략연과 함께 했던

그때가

가장 아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축하

아! 역시 지략연이구나.

현장님, 사무국 선생님들, 그리고 지략연 가족들,

모두 친절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오늘이 있기에 또 다시 힘이 나겠지요.

지략연의 식구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자양으로 꼭 찬

10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또한 기쁘구요.

선배들아 동료,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후 10년 후,

더 벅찬 자리 되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이들의 হাস!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승천!

언제나 함께 해온, 그리고 함께 해갈

지략연 1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새날을 여는 사람들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범한 여대생이었겠죠?

- 봉천동에기방 고참자활 홍소연씨와의 짧은 만남 -

편집부

이번호는 95년 송년호이기도 하지만 지략연 10주년 행사도 있었고 해서 10주년 축하잔치에서 만난 사람들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가 끝나고 나니 제대로 취재한 사람이 없어서 처음의 포부가 썩쓰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 하려고 노력하다 생긴 실수니까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리라 여기면서 [새날을 여는 사람들] 이번에는 자그맣게 보냅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있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축하잔치 행사장에서 홍소연씨 (봉천동에기방 자원활동가)를 만나 이젠 자원활동가로서 원숙한 경지(?)에 이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부 : 오랫동안 자원활동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략연 10주년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홍소연 : 활동은 오래 해왔지만 왠지 지략연은 자원활동가하곤 거리가 먼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준비하다보니 가까워진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죠?(홍소연씨는 이번 행사중 '지략연 10주년 슬라이드상영'에 참여했었다)

편집부 : 처음 활동했을 때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텐데 변한게 있다면?

홍소연 : 제가 얘기방을 모르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한 여대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여러면으로 변한 것 같아요. 여성문제에 관

심을 갖게 된 거라든지, 학내에서 동아리도 만들게 되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감해지고 씩씩해진 것 같아요.

편집부 : 자원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는?

홍소연 :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그러던 아이들이 얼굴도 알아보고 이름도 불러주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모들(봉천 지역에서는 교사를 이모라고 부른다)과 같이 할 때 아이들이 잘 따라 줄 때가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엄마들하고 친해져서 동생들처럼 대해질 때도 너무 좋았어요.

편집부 : 선생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홍소연 : 열악한 환경에도 씩씩하고 깨끗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게 한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월가는 줄 몰라 자신이 늙어가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언니들에게 혼나겠네요). 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신의 권리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편집부 :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홍소연 :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탁연은 교육의 질에 매진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탁연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촌스런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하고 따뜻한 인간의 냄새를 그대로 간직하겠죠.

행사장안은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노장을 과시한 홍소연씨의 이야기는 여러면에서 자원활동에 통달한 듯 했다.

어렵고 힘겨운 보육의 일에 늘 그림자처럼 지원을 해주는 자원활동가들 -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다.



안애를 마무리하며

사진으로 보는 지탁연의 1995년

편집부 위임

1995년을 며칠 남겨두고 한해동안 지탁연이 해온 활동과 행사들을 사진을 통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올해는 교사조직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면서 대외적인 사업들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이 난감하기도 하였지만, 귀중한 논의들을 해왔던 한해를 그냥 스치기엔 너무도 힘들고도 소중한게 보내왔던 시간들이었기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95년 겨울수련회 및 제10회 정기총회

올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겨울수련회 및 정기총회는 눈 내리는 비련의 고장, 부여에서 있었다.

이 수련회(총회)를 통해 우리는 지탁연의 전망을 교사조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

1995년 2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150여 명의 민간시설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전국민보련)가 공식적인 창립을 선언하였다.

이날 전국민보련 준비위원장이기도 했던 본 회 최현숙회장은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교사조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 진행

올초 겨울수련회에서 지탁연의 이후 전망을 교사조직으로 두면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월례강좌 '교사조직과 교육운동' 3차 진행 (3/30-5/25), 소모임추진위원회에서 '교사조직과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교육을 2차례 진행 (7/8, 14)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교사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잡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병행되기도 하였다.

제5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91년부터 해마다 벌어왔던 어린이날 행사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를 올해 역시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대 총학생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등과 함께 서울교대에서 진행하였다.



'지방자치와 보육사업' 교육 실시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5월 13일 기장여신도회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 멀리 제주도에서 부터 참여하는 등 많은 보육사업 종사자(원장)와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와 보육사업'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제5대 회장단 선거 후보공고

지탁연 재정마련 일일호프 진행

지탁연의 재정확보를 위한 일일호프가 지난 6월 4일 종로1가의 목마호프에서 있었다. 모처럼 설 수 있는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탁연을 아끼고 염려하는 분들과 지탁연의 소중한 회원들이 함께 하였고, 모처럼 전직교사들이 모여 옛기억을 되살리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개소

보육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에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서정은)]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사무실을 옮기고 6월 24일 개소식을 했다.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본회가 주관

전국민보련의 주최로 마련된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2회 반복으로 경기도 흥원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뜻밖의 호응을 얻었던 이번 보육교사 여름연수는 지탁연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다른 교사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그 성과로 봐야 할 것이다.





정희연 부회장 영국연수행

지탁연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던 정희연 부회장(아이사랑어린이집)이 9월 2일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희연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방학 제외) 1년간 보육과 관련된 제반교육과 영국의 보육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일본 보육시설 2차 연수단 파견

작년에 이어 지탁연의 교사 6인이 일본 오오사카의 보육시설과 관계시설들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연수는 작년에 비해 훨씬 긴 보름간의 일정으로 10월 24일 출국하여 11월 7일 귀국하였다.

이번 연수단은 작년의 연수단 자료까지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월간 [유아정보]에도 연수기를 연재할 예정이다.



지탁연 창립 10주년 축하잔치 및 10주년 활동자료집 발간

지탁연의 활동 10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11월 26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식구들과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한편 이날 지탁연의 그간 활동을 정리하고 각종 자료를 한데 모은 자료집 [지역사회탁아소 10년 활동]을 발간하여 참석한 이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제5대 회장단 선거 후보공고

회장 후보

남미영(당 35세, 기혼)



1984년 성심여대 화학과 졸업.

1987년 - 현재 새터어린이집 근무

1991년, 1995년 구로지역 대표 역임

1993년 - 현재 본회 부회장

1994년 한일보육교사연수협회 초청 일본연수 참가
현 새터어린이집 원장.

부회장 후보

이은애(당 30세, 기혼)



1990년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졸업

1990년 2월부터 안산지역에서 어깨동무로 보육활동 시작

1991년 안산지역 대표 역임

1994년 안산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한일보육교사연수협회 초청 일본연수 참가

현 진달래동산어린이집 원장

안산시 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원(당 29세, 미혼)

1991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1년 2월 용기중기어린이집 설립준비 및 근무

1992 - 1993년 수원지역 대표 역임.

현 수원 올망졸망어린이집 원장.



위양자(당 32세, 기혼)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1989년 12월 해프는동산 근무시작.

1991년 - 현재 군산지역 대표.

1996년 한일보육교사연수협회 초청 일본연수 참가

현재 사회단체 진포문화마당 부설 해프는 동산어린이집 근무.

지택연 교사들은 모두 모여라

1996년도 지택연 겨울 교사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정다운 이들이 얼굴을 맞대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애정을 확인하는 자리.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모두 모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

지택연 겨울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모두들 자리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앞길이 결코 험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 : 1996년도 1월 3일 - 5일(2박 3일)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대상 : 지역사회복지아동연합회 회원들.

회비 : 서울경인에서 참가하는 교사들은 35,000원

지방에서부터 참가하는 교사들은 30,000원(편도차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준비물 : 세면도구와 필기구, 간단한 옷차림(세조용), 개인용품,

장고(국악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새노래 배우기가 진행됩니다.
- 첫날과 마지막날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모임교류의 시간> 중 [동작교육]은 소모임과 관계없는 교사들을 위한 별도강의로 진행됩니다.
- 소모임과 관계된 프로그램은 분반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소모임을 꾸리고자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 · 정 · 표

일시	첫째날(1/3)	둘째날(1/4)	셋째날(1/5)
오전 7:00		세면 및 구보	세면 및 구보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및 김정리
9:00			일본보육연수 보고대회
10:00		지역사회복지아동연합회 제11회 정기총회	교사의 건강관리-요가배우기 (강사:배정희)
12:00			지역별 평가
12:30			폐회식
오후 1:00		점심식사	귀가
2:00	점수 및 방배치	<소모임 감학 위한 분반프로그램> • 화가가 본 그림책과 읽어주기 강사:정승각 • 어린이국악의 필요성과 소고춤, 탈춤의 기본동작 익히기 강사:임수정 • 자연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강사:박현숙 • 영아건강교육 강사:김신영	
3:00	개회식		
4:00	• 초청강연 • 교육과 교사운동 강사:이수호	<소모임 교류의 시간> • 그림책모임/슬라이드발표와 현 장보고 • 국악모임/출동작 응용 및 창작 • 영아모임/자유토론 • 동작교육/소모임의 별도신청자 강사:이현경	
6: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	1996년 임원 후보자 소개	<정보소개> -답사모임 사례보고 -통신소모임을 만들자 -유아교육기관보합에 관하여	
7:30	1996년 지택연 교사조직과 관 련한 전망과 토론		
8:00		공동체놀이	
10:30	지역위원회별 모임		
11:30	취침	취침	

기획

겨울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 영양사

10-12개월 이유식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갇죽	장국죽	달걀죽	빵죽	닭채소찜	미역국
2주	쇠고기무우국 과 밥	멸치죽	으깬 고구마	호박죽	감자크로켓	물만두
3주	편 무조림	야채달걀말이	시금치죽	우동죽	굴죽	국수장국
4주	쇠고기미역국 과 밥	카스테라와 우유	갇죽	다진고기 넣은 야채죽	으깬감자	달걀연두부찜

3-5세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간식	우유	두유	우유	코코아	흰죽	우유
점심	쌀밥 홍합미역국 완자전 느타리버섯 김치	보리밥 감자호박찌개 달걀조림 무나물 김치	차조밥 김치국 고등어튀김 콩나물무침 깍두기	쌀밥 콩나물국 감자볶음 연두부 김치	떡국 호박전 김치	김은콩밥 두부된장국 부추달걀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오후간식	떡꼬치	절편과 요구르트	편고구마	떡볶이	샌드위치와 우유	경단과 주스
오전간식	두유	요플레	크림스프	우유	우유	두유
점심	쌀밥 쇠고기미역국 미역줄기볶음 두부조림 김치	짜장밥 달걀국 깍두기	보리밥 생선찌개 청포묵무침 우엉조림 김치	수수밥 감자국 제육장조림 김구이 김치	쌀밥 김치된장국 도라지나물 두부구이 김치	보리밥 비지찌개 무말랭이무침 오징어채볶음 김치
오후간식	콘후레이크와 우유	감자전, 우유	편달걀과 굴	과일샐러드	절편과 사과	래작과(타래 과)
오전간식	코코아	요구르트	우유	두유	크림스프	흰죽
점심	쌀밥 김치어묵국 달걀찜 취나물볶음 김치	팔밥 북어국 애호박볶음 닭찜 김치	김치볶음밥 미역국 단무지무침	보리밥 청국장 어묵볶음 연근조림 김치	쌀밥 육계장 오이무침 깍두기	국수장국 동태전 김치
오후간식	인절미와 감	편향과 주스	편고구마	프렌치토스트	떡꼬치	편감자
오전간식	요플레	우유	우유	코코아	우유	두유
점심	쌀밥 시금치된장국 고등어조림 다시마부각 김치	오징어덮밥 달걀국 깍두기	차조밥 김치콩나물국 야채달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보리밥 쇠고기미역국 도토리묵무침 닭강정 김치	비빔밥 조개국 단무지무침	쌀밥 순두부찌개 메추리알조림 콩나물무침
오후간식	카스테라와 주스	래작과와 사과	경단과 식혜	과일샐러드	편만두	절편과 주스

기획논단

지탁연,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황미혜 / 본회 조직선전부장, 편집부

지난 11월 26일 있었던 본회 10주년 축하잔치를 기념하는 최현숙 회장의 기념사에서 지탁연의 이후 항방-교사조직으로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면에서는 그간 지탁연이 내부적으로 고민해왔던 교사조직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보육현실의 변화와 다양한 보육단계의 출현

보육에 대한 요구를 자생적인 민간시설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80년대를 지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부의 시설확충의 노력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와 그 조건의 변화, 교육에 대한 질적 욕구들의 팽배는 다양한 목소리와 색채를 지닌 보육단체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특히나 올해 2월에 있었던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출범은 그간 제도개선등의 활동을 주로 펼쳐왔던 지탁연의 전망을 새롭게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보육현실 속에서 또다른 고유의 내용을 갖는 단체이기를 요구받게 되었다. 지탁연은 기존의 단체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색채와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동안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속에서 보육의 중심주체가 바로 교사이며, 따라서 이들의 조직화와 그에 따른 활동을 우리의 고유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제는 교사가 서야한다

보육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의 많은 몫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 바로 보육사업에 긍지를 지니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보육교사들의 역할과 힘은 나오는 것이며 이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일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인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교사로서 하는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받는 일이고, 또한 보육활동, 교육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만한 기회(제교육등)와 조건(처우)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만이 창조적이고 안정된 보육사업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의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몫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사와 관련된 정책을 세워낸다.

둘째, 정책과 사업을 함께 내오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내야 한다.

셋째, 교사로서의 전문영역인 교육과 관련하여 올바른 교육내용의 연구와 실천을 해야 한다.

이 세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탁연 식구들만이 뭉쳐서는 안될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탁연의 교사들은 교사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도개선 요구활동을 중심으로 해오면서 시설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사고하고 이야기해왔다. 게다가 지탁연의 자랑거리며 역사였던 교사공동합의체제는 원장과 교사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사 모두가 밤새 고민하고 자신의 돈을 출자하고 빚을 얻고 인건비를 덜 받아가는(!) 지탁연만의 현실에서 우리는 온전한 원장(우리는 그저 비공식적인 원장들이지, 만약의 사태에 책임지게 되는 실제 원장은 구청에 원장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한사람뿐이다)도 온전한 교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서있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노래

현재의 상태에서 절대로 교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단체가 어쩌면 지탁연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교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아내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눈 앞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탁연이 '우물'로 되어버리고 그안에서 우리끼리 노래하는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안일주의를 경

게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접촉을 계속 시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교사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교사조직이 되겠다면 어떤 부담과 어려움에도 다양한 조직사업의 시도가 끊임없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교사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사조직의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간 진행되었던 논의를 정리해보며 크게 두가지로 이야기하였다. 하나는 지역과 중앙에서 각 역량과 상황에 맞춰 대중사업들을 벌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이나 교양과 관련한 각종 소모임을 건설하고 추진하여 지속적인 만남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사업과 함께 내부 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조직사업이 될 것이다.

어제의 지탁연과 내일의 지탁연은 남남?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탁연은 제도개선과 지원요구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또 내부적으로 지탁연 회원간의 공통성으로 표준단가보다 낮은 보육료를 비롯한 운영의 비영리성과 교사공동합의체제를 통한 민주적 운영, 부모회 운영 및 부모회를 통한 재정공개, 지역이나 관련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을 꼽아왔다.

그렇다면 교사조직으로의 전환은 이전에 해왔던 모든 사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급히 말하자면 대답은 '아니오'다.

지탁연은 교사조직사업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그동안 하나둘씩 쌓아왔던 것들 - 비영리 운영, 부모회, 교사합의체제 - 을 절대(!) 버리지 않기로 하였다. 바로 지탁연의 정체성을 잇는 것이다. 단, 이런 지탁연만의 운영방식이 단지 당위적 사고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현장에서 검증하여 다시 올바른 시설 운영의 모델로 정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잡히게 되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운영안에서만 교사의 치우도, 교육환경 개선도, 교육내용의 변화발전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주변의 걱정처럼 원장세력과 대립되는 단체로 변하지 않는 이유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조직을 노조와 동일시하는 경향에 대하여도, 우리는 단호히 당신네들의 우려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교사조직은 보육사업의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본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원장과 교사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지니지 않고서는 교사나 원장 그 어느 쪽의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사들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려 한다면 개별 시설에게 이 인상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단체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원장이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아동정원수를 늘리거나 교사대 아동

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요구한다면 교사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장과 교사 공동의 대안이 제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 함께 어깨걸고 하나 둘 셋!

교사조직으로 우리의 전망을 밝힌지 이제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우리는 많은 논의와 크고 작은 실천들을 진행하여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첫발자국을 옮기기에는 많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 교사회를 위한 준비체제로 전환한 지역도 얼마 되지 않는다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미련도 채 버리지 못하였다.

이제는 각자가 어디에 서있는 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역할에 따라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이 요구되는 때이다. 온전한 교사가 되어, 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사의 입으로 세상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하였듯이, 미래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희망을 지니고 일사람의 한걸음을 소중히 하며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연장소식

제1회 실기강습회를 마치고

김향진 / 부산지역위원회 교육부장

부산지역위원회(이하 '부탁위')에서 95년 총회를 거쳐 회칙수정과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부탁위가 명실상부한 부산지역의 보육교사들의 대중조직이 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회원의 구분과 자격을 고치고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어렵고 이색한 일들에 한발한발 다가갔고 부탁위는 이런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한지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수련회 이후 회원과 비회원들이 부담없이 한 곳에 모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실기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강습회 사업을 계획했다.

드디어 95년 10월, 강습회 구상의 첫사업이 계획되었지만 11월에 미루어져 11월 5일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정보센터내 시청각실에서 첫 강습회를 열었다.

부탁위에서 강습회를 통해 교사대중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은, 강습회라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육현장의 교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교사라면 특별한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수의 부산지역 보육교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에 부탁위의 교육부에서 주관해 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는 당일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강사실기가 있었고 5시-6시까지 다과회와 평가회로 이어졌는데 강습회 내용은 구연동화와 노래 및 율동이었다.

강습회에 필요한 장소, 자료집 발간, 테잎 녹음 등등...

당일 제일 걱정은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중 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사는 37명이었다.

비록 많은 수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순서가 끝나고 평가회를 하면서 많은 얘기



가 오고 갔다. 강습회 규모가 작다는 것, 하지만 내용중 구연동화 반응이 좋아 많은 교사가 참여하지 못한게 아쉽다며 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냐는 질책도 있었다. 그리고 부탁위가 있다는게 반갑고 부산지역에 이런 단체가 있다니 너무 놀랍고 앞으로 이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얘기 등, 이전 우리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게 평가회속에서 이야기되었다.

이제 강습회를 마친 지 보름, 다음 강습회를 준비해야 되는 때이다. 그리고 신입회원도 2명 늘었다. 무엇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힘이고 출발인 것 같다. 다음 강습회를 기획하면서 부족하게 많은 강습회지만 일반 강습회처럼 대단위 인원의 건성적인 강습회가 아니라 반드시 교사들을 만나고 평가하며 우리와 같이 함께 하는, 모든 참석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강습회가 되도록 하자는 자세를 저버리지 않고 한사람의 열거움보다 열사람이 한걸음을 가는 강습회를 만들어야겠다.

물설고 낯설은 타향에서

- 두번째 이야기 -

정희연 / 본회 부회장

둘명이 하나, 풀 한포기까지도…….

지난호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클래스는 10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9명이다. 레바논에서 온 라바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저히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 생활에 적응을 못하더니 여기 온 지 1달만에 모두 정리하고 돌아가버렸다. 라바는 레바논의 맹아학교에서 맹아들을 가르치던 친구였는데 빼어난 미모로 기숙사의 못 남학생들을 가슴 설레게 했었다. 영화구경 초대, Pub 초대(Pub은 영국의 전통적 선술집으로 우리로 치면 호프집쯤 되겠다. 참고로 밝히자면 본인은 필리핀친구가 받은 초대에 덩으로 끼어 잘 생긴(?) 독일 남학생과, 역시 멋진 네덜란드 남학생과 한번 가봤다. 영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별 감흥을 못받았었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친구였는데 그것도 그녀의 향수병을 이기지 못했던 모양이다.

한번 로비에서 집에 전화를 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보든 말든 엉엉 울며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약간씩 다른 심정으로 착잡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었다.

그녀의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일부는 약간 시원섭섭한 눈으로, 일부는 안타깝지만 약간의 한심한 눈으로,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간다니 부럽군'하는 심정으로. (라바야! 아들네미에 남편도 떼어놓고 온 나같은 사람도 참고 견디잖니?)

이곳은 우리나라와 자연풍광부터 너무도 틀리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산업도시라 해도

웬만한 높이의 산들은 다 있다. 서울로 말하자면 남산에 인왕산에 북한산에 또한 이름 모를 동네 앞, 뒷산 등. 그러나 여기는 스코틀랜드 지방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별로 산이 없단다. 기숙사가 있는 이곳 Harlow나 학교가 있는 Ware나 마찬가지다. 넓은 들판들, 푸른 초원에 펼쳐진 목장들, 사이사이에 좁은 개울들(곧 죽어도 이곳 사람들은 실개울 같은 물줄기에 꼭 강자를 붙인다)……. 학교가는 길에 있는 많은 목장들에는 양떼, 잘 생긴 말떼, 엄청 큰 젖소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이사이 개울에는 거위며 오리떼에 백조들까지 평화롭게 떠있고, 대충 한쪽의 서양풍경화를 연상하면 되겠는데 난 얼마나 이 풍경들이 맛있하고 싱거운지 모르겠다. 조금 안 치고 삶은 감자맛 같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산과 강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것이다. 역시 모든 것은 '신토불이'야, 하면서.

내 침대옆 벽에는 5장의 사진이 붙어있다. 그중 가장 큰 한장은 물론 아들놈과 남편이 들어있는 가족사진이고 그 나머지는 영국으로 오기 전 지난 여름 여행때 찍어둔 감은사탑과 석가탑 사진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충실히 읽으신 독자들은 잘 알 것이다. 유홍준 교수가 얼마나 감은사탑을 감탄하며 묘사했는지. 표지사진에도 나와있다. 난 정말 이 탑을 좋아하는데 매일밤 자기 전 이 탑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기도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이곳에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갑자기 향수병이 도진다거나 원인모를 우울에 빠진다거나 과도한 공부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낙이기도 하다. 톰툰이 읽은 게 벌써 두번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유홍준 교수에게 따로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싶은 정도이다.

"아! 감은사탑, 감은사탑이여……. 오! 그리운 우리 산천이여……."

이곳 학기는 1년에 3학기제다. 학기를 term이라고 하는데 매 term마다 1주일씩의 Half term이라고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때 3주일, 4월에 2주, 7·8월에 2달의 방학이 있다.

나는 매학기마다 한가지씩의 소논문(논문)을 제출하여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내년 수료식때 diploma(편주:학위 수료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번 과정은 크리스마스 휴가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과목은 social studies다. 내가 택한 주제는 '산업화에 따른 한국가족의 변화'이다. 상상해 보시라. 한국말로 쓰래도 두통이 날 지경인데 이걸 영어로 쓰라고? 어쨌든 초고를 냈는데 교수의 멘트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클래스 중 2명만 '내용이 훌륭함, 소개글이 좋았음'이란 칭찬(?)을 들었다. 물론 영어실력과는 무관한, 순전히 대학시절 하라는 전공공부 안하고 익힌 사회과학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대신 본문은 온통 틀린 단어와 문법에 대한 체크로 얼룩져 있지만.

영국 유아교육시설의 종류

우리 코스는 총 6주간의 현장실습시간과 약 27회에 걸친 현장방문이 있다. 지금까지 5곳의 시설에 대해 하루씩 현장방문을 했고 한 곳 시설에는 1주일간의 현장실습을 했다. 마지막 시설에는 크리스마스 휴가 전까지 일주일에 하루씩 현장방문도 하고 있다. 처음 5곳 중 한 곳은 'Health Center'라고 하는 의료시설이었으므로 내 연제가 끝날 때쯤 영국의 의료시설과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는 게 나을 듯 싶어 일단 제외해둔다. 그것을 빼면 'Play Bus', 'Griffon', 'Busy Bees', 'Port Hill Mother & Toddler Group'과 지금 현장방문을 다니고 있는 'Hare Street County Nursery Class'이다. 앞의 4곳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뒤의 시설은 학교에 소속되어 운영비 전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나중에 다시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지만 이곳은 많은 자선단체들과 행사들이 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가 많다. 이곳에 오기 전 영국에 대한 생각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이런 행사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수업시간에 어떤 교수는 영국의 사회복지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지급등 예산은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젊은층의 경제활동력은 줄어들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자선단체들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매주마다 각기 다른 단체들에서(주로 어린이를 위한) 길거리에 나와 모금을 하는데 뽀빠로 복장을 한다거나 한판 신나는 노상연주회를 벌인다거나 한다. 이곳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매우 익숙해 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행사 외에도 이곳 지역사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많다. 유아교육시설이나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분명 이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해 개인주의 경향이 심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주의적



← Hare Street County Nursery의 야외산책시간.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좋은 자연공간이 주위에 많다. 아이들은 준비해간 과자를 오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도토리도 줌고 낙엽도 모으면서 한나절을 보낸다.

Griffon이라는 Day Nursery의 → 한 교실 풍경. 연령별로 반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방은 Blue Room으로 3-4세 아이들의 교실.



성향의 틈을 메워주는게 자선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이들은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다른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다. 내가 방문했던 시설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략하게 영국의 시설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Nursery School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사는 대학에서 학위(유아교육)를 받거나 3년의 훈련코스를 수료한 1명의 선생님(teacher)과 2년의 훈련과정을 거친 보조교사(nursery nurse)가 있어야 한다. 보통 아이들은 한 클래스에 20-25명선이고 오전, 오후반을 따로 운영하거나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반을 운영한다. 시설은 교육법에 의해 규정받는다. 아이들 연령은 만2세-5세 사이.

2) Nursery Class

다른 것은 Nursery School과 비슷하나 보통 이 시설은 Infant School¹⁾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내가 현장실습중인 Nursery Class는 Hare Street County Infant School에 소속되어 있다.

3) Day Nursery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앞의 1), 2)번은 교육부 소관이고 이 시설은 사회복지부 소관이다. 앞의 시설들과 달리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다. 아이들 연령은 생후

1) primary school(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가는 곳으로, 보통 6-7세의 아이들이 다닌다. 이 Infant School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 Busy Bees라는 Play Group의 활동시간. 기타를 치는 교사가 어쩌나 신명나게 노래하던지 옆에서 보던 나도 덩달아 흥이 났다. 물론 아이들도 신나게 노래와 율동을 했다.

몇주된 아기부터 5세까지 다양하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종일반으로 운영된다. 편모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많은데 시설이나 종사자의 자격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같으나 교육비는 매우 다양하다.

4) Child Minder

우리 말로 하면 '아이 돌보는 사람'쯤 되는데 자기 집에서 한명에서 두세명 정도의 아이들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말한다(초기의 우리나라 가정탁아와 비슷). 이들은 반드시 소관부처에 등록해야만 한다. House play group이라고도 하는데 해당부처로부터 교구, 교재 등을 대여받거나 재교육등의 지원을 받는다.

5) Mother & Toddler group

지역사회의 젊은 부모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정부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지원도 받지 않는다. 주로 교회나 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만3세 이하의 아이들이 대상연령이고 특이한 점은 부모들과 함께 일과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참여해야 하는데 여기의 책임자는 다른 시설과 달리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로 공간과 교재, 교구, 놀이감만 제공할 뿐이다. 주요목표도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또래집단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것과 동시에 젊은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주는 부담감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들은(주로 엄마)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등을 교환하면서 편하게 된다.

다른 시설들은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의 책임이지만 이 시설은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특징이고 비용은 각기 다르다. 주로 2-3시간 동안 진행된다. 부모들

'Port Hill Mother & Toddler Club'의 풍경. 넓은 교회 hall을 빌려쓰고 있었는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엄마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쉬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끝날 때까지 참여한다. →



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낸다.

이밖에 Nanny라고 개인적으로 아이의 집에 가서 직장나간 부모를 위해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러 책에서 지적하듯이 요즘에 와서는 각 시설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무교육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기유아교육시설은 크게 Nursery와 Play group으로 나눌 수 있는데 Play group은 Day nursery 일부와 Mother & Toddler group이 포함된다. 'Play group Movement'는 1950년대경부터 공식적인 Nursery교육이 시작되는 5세 전의 저연령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정부기관에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그의 필요를 느끼는(어린 자녀를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들끼리의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할까? 교육시설도 없고 부모들의 교육수준도 낮고 경제상황도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등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 부모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매우 보편화되어 낙후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많은 시설들이 생겨났다. 초기에 보여지는 문제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지역사회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지금도 Play group의 주요활동내용 중에는 '부모참여'와 Social services의 제공이라는 두 측면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Nursery와 Play group은 내가 방문해본 경험에 의하면 몇가지의 대별점들이 있다.

첫째로 Play group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행사를 벌인다²⁾.

2) 어떤 기록에 의하면 1991년 현재 Play group의 1회 교육비는 평균 1.51파운드라고 한다. 시설운영하기에는 매우 적은 액수.



← Play Bus는 한 식당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빌려쓰고 있는데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버스 옆 잔디밭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논다.

둘째로 주로 Nursery는 나름대로의 짜여진 하루일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Play group은 자유선택놀이 시간이 많다는 점.

세째 대상연령이 Nursery는 Infant School에 가기 전 주로 4-5세 아이들이라면 Play group은 그 이하 연령의 아이들이 주대상이라는 점.

넷째 Nursery는 반드시 정규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어야 하나 Play group은 그렇지 않다는 점(시설마다 약간씩 다르나 꼭 정규교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섯째,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설면에서 주로 Nursery가 훨씬 좋은 환경(건물, 교구 교재, 각종 놀이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다.

맨앞에서 이야기한 네 곳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고 난 나의 느낌은 Busy Bees라는 Play group에 가장 호감이 갔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모두들 Griffon이라는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던 Day Nursery를 꼽았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Busy Bees는 여러 면에서 (남은 교회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었고 교재교구나 놀이시설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나 교사들과 아이들은 어느 곳보다 생기와 활력이 넘쳐있었다) 우리 지택연 소속 시설들과 비슷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난 개인적으로 이 Play group Movement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보육운동의 발자취와 흡사한 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따로 이 Movement에 대해 조명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이번호에 내가 직접 방문했던 시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었는데 벌써 지면이 다 한 관계로 부득이 Play group에 대한 현장보고는 다음호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특히 'Play bus'는 매우 참신하고 독특한 item을 취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버스가 등장한다. 기대하시라! 다음호를.

노영심과 김광석, 그리고 노찾사 사이에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와 김광석의 테이프를 가끔 듣는다. 음향기계의 발전 덕분에 '그리움만 쌓이네'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노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 영국 특유의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며 몹시도 강하게 바람이 부는 날 창가에 앉아 '그리움만 쌓이네'와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호젓이 혼자만의 감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사무국의 황미혜 부장이 노찾사의 노래테이프를 보내주었다. 그걸 들으면서 새삼 진강한 노래의 진강한 정서를 느꼈다. '외연한 산하'의 장중함, '그리운 이름'의 애잔함, 그러나 바닥에 깔려 선연히 느껴지는 이름 칭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동시에 생각하며.

오늘도 내 정서는 '그리움만 쌓이네'와 김광석과 노찾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정희연의 정서는 거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면서.....

오늘은 11월 25일이다. 내일은 지택연의 10주년 잔치가 성황리에 펼쳐지겠지. 그리운 사람들 모두 모여서, 약간은 쓸쓸한 느낌으로 글을 맺는다. 최선희 재정국장님의 말을 빌려 '한번 지택연은 영원한 지택연이다'를 마음 속으로 되뇌이면서.

아! 잊을 뻔 했구나. 내일은 또한 나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네. 여러가지로 혼자 자축해본다. 글을 마치는데 동메이트가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건네준다. 거기에는 노태우의 수감소식이 들어있었다.

정희연 부회장이 머무는 영국의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힘겹게 영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정희연 부회장님께
여러분께서 종종 연락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
겨집니다.

CHUNG, HEE YUN
48s, YWCA Alexandra Hostel
Fourth Avenue, Harlow,
Essex, U.K.
CM20, 1DN

좋은 그림책 소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글, 그림 / 박상희 옮김 / 비룡소 / 6,500원



그림책을 손에 들고 표지를 보면, 달리는 기차에서 목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강아지와 사내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제목부터가 책을 보는 사람을 궁금하게 하면서 한편으론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할 말이지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를 넘기고 제목이 적힌 장을 또 두번 넘기면, 기차 놀이에 흥분 빠진 사내아이고 잠자리에 들 것을 재촉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차놀이와 동물을 좋아하는 사내아이는 꿈속에서 기차여행을 떠나고, 말없이 탄 동물들에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칩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이 사는 터를 사람들이 망가뜨려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차례로 기차에 올라탑니다. 어느새 눈이 많이 와서 기차가 갈 수 없게 되자, 사내아이는 동물들과 힘을 합쳐 눈을 치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마지막장은 기차와 함께 어머니와 잠이 깬 아이의 모습이 처음장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온통 동물들 투성이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그림책은 환경보호-동물도 이 지구의 주인이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어찌보면 흔한 주제를 아주 쉽고 드러나지 않게, 보는 이가 마음으로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면서 강요하지 않는 그림책이라서 읽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화체로만 이어져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문장으로 군더더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림을 보면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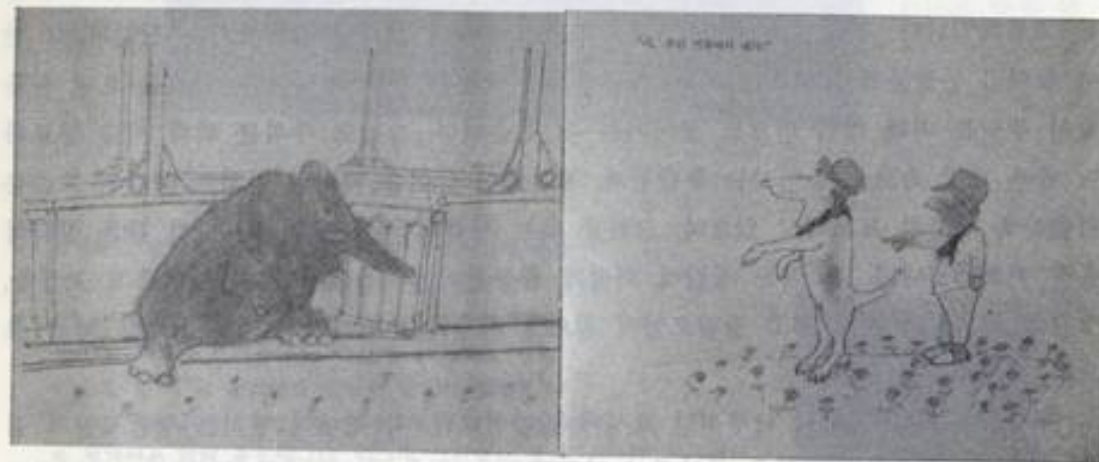
그림은 가는 선으로 그려내면서도 아이들이 '아!'하고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에는 채색을 하여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적절한 전면 활용도 돋보입니다. 상상의 세계로 떠

날 때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때의 기차가 움직이는 장면은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또한 그림책을 직접 보면 느끼겠지만 각 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된 그림처럼 느껴지는데 여러 그림 기법을 써서 그때그때 그 장면의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이 그림책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과 기차를 소재로 그림책을 만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그대로 그려낸 듯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는 손도 못대게 하는 아이의 심리와, 어른과는 달리 쉽게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마음을 작가는 잘 이해하고 그림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야, 우리기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치는 강아지와 사내아이가, 그 다음에 자기도 기차에 타게 해 달라고 조르던 코끼리까지 가세해서 두루미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진짜 큰 웃음이 납니다. 아마 한동안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면서 울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놀이를 마음껏 신나게 하는 모습 또한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기차에서 내려 / 태워줘 / 기차가 떠나고 / 다른 놀이를 또 하고..... 이런 장면이 여러번 반복되면서 사건이 이어지는 반복구성으로,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겁니다.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5살 정도는 되어야겠고, 더 어린 아이들도 그림만 보더라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실내활동이 더 많아질 겨울에 아이들과 기차놀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지요.



장갑

우크라이나 민화, 에우게니 M. 라조프 그림 / 김중철 옮김 / 다산기획 / 4,500원



[장갑]은 작년에 소개한 그림책입니다. 이번에 또 소개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그림책을 모르는 선생님이 많아 이 기회에 [장갑]을 꼭 어린이집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즐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리고 간 장갑 하나에 쥐가 집 삼아 들어가고, 다음엔 개구리, 토끼, 여우, 늑대, 멧돼지, 곰까지 들어가 장갑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걸던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장갑을 찾으러 오자, 동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할아버지는 장갑을 좁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갑은 원래 그림책용으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민화를 에우게니 M. 라조프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그림이 필요 없어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갖는 풍부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갑] 그림책은 옛날 이야기의 맛을 충분히 살린 그림책입니다. 본래 이야기에는 겨울이라는 배경이 없지만 그림작가는 장갑과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표현하기 위해 겨울이라는 배경은 만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 장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피해 서로 양보하며 좁은 장갑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들과, 동물들이 들어올 때마다 변하는 장갑의 모습은 비좁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곧 터질 것 같은 장갑에 훌쩍 빠져버립니다. 그 작은 장갑에 어떻게 동물들이 다 들어갈까 하는 어른의 걱정을, 장갑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장갑모양의 집으로 바꾸어서 여기저기 세부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세부적인 묘사에 민감합니다. 각 장마다 변하는 장갑모양의 집에 생기는 굴뚝, 못, 종 등을 찾아내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그런 아이들의 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의 세부를 보는 기쁨을 즐깁니다.

게다가 글에 나온 팔딱팔딱 개구리, 먹보 생쥐, 빠른 발 토끼 등의 표현과 반복적인 구성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꼭 이어지는 기승전결의 구조보다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번역 그림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문장의 리듬감을 살리지 못하고 번역자 마음대로 글을 바꿔 버려서 그림책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시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장갑] 그림책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번역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림책의 도입과 결론부분에는 장갑만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장아지를 찾습니다. '어디갔어요?'하고, 이 그림책이 좋으면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세 이상의 아이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과 동극을 해 보면 좋겠군요. 그리고 소꿉장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욕심장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이의 욕심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지요?



** 소개된 그림책을 96년 1월 15일까지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좋은 그림책 소개>에서 나온 책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읽고 글썽 보내주세요. 다소 다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글에 쓰여있지 않은 중요한 평가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으로 그림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내면 그림책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이니깐요. 좋은 글을 기대합니다. 평가서를 보내 주시면 '그림책 교사모임(가칭)'에서 좋은 책 한권을 보내드립니다.



글마당

탁 아 소 별 국

[꽃망울놀이방]편

이야기 하나 - 먹은 수 있나요?

자유놀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바닥에 다 꺼내놓고 바구니로 기차놀이를 하고 있었죠. 아주 산만한 틈을 타서요.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자활이모가 소리쳤어요.

이 모 : 너희들 먹은 바구니 정리해!

안 그러면 장난감 바구니 다 부숴먹는단 말이야.

이때 한참 신나게 놀던 정인이 왠,

정 인 : 이모! 나 바구니 안 먹었어요.

이모, 삼촌들! 언어에 좀더 신경써야겠죠?

이야기 둘 - 오랑이는 음머?

4살된 윤진이가 놀이방에 온 지 얼마 안된 어느날, 윤진이가 동물울음 흉내내기를 했어요.

선생님 : 윤진아! 꼬꼬닭은 어떻게 울지?

윤 진 : 어흐-(두손으로 호랑이 흉내를 내며)

선생님 : 그런, 멍멍이 개는?

윤 진 : 어흐-

선생님 : 그런 호랑이는 어떻게 울지?

윤 진 : (한참을 생각하더니) 음머-

이야기 셋 - 입에 바쁜 억은 빨간 억!

모처럼 경옥이 이모가 신경써서 맛을 내고 온 어느 화요일. 유난히 경옥이 이모의 입술이 빨갭게 돋보였어요.

이모 입술을 유심히 쳐다보던 영락이는 걱정스럽다는 듯

영 락 : 이모! 입술이 왜 빨개요?

이에 당황하는 경옥이 이모는 대충 이렇게 일버무렸다.

이 모 : 으으~, 이모 입술이 아파서 약 빨았어.

다시 영락이는 이상한 듯

영 락 : 이모! 요즘 약은 그렇게 빨개요?

우리들의 목소리

이번 우리들의 목소리는 연말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글을 모아보았습니다.

우선 10월부터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로 새롭게 결합하신 두분의 글을 실고, 지탁연 10주년 축하잔치 1부 기념식에서 교사대표로 낭독하신 김실이 선생님의 글을 다시 옮겨 달았습니다.

무엇이든 끝은 곧 시작이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지탁연 식구들을 다시 만나며

강예란 / 편집부

우리아가동산 전직교사

세월이 흘렀습니다. 94년 2월, 설날 고향에 내려간다고 좋아서 별꼴을 친구네 집에서 세통이나 가지고 우리 이모네 계단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올랐는데 짐을 내려놓자마자 나는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폭풍주의보가 내린 바다를 해군경비선에 실려

여수병원으로 나오고 계셨고, 나는 작은 택시를 타고 부산에서 여수로 내려가면서 "제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지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살던 자리를 그만 두고 엄마의 손에 물은 고향 섬마을로 가겠다고.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엄마가 정 주고 사셨던 고향땅에 내려가 "우리 엄마"를 느껴보고 싶다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부산을 정리하던 중 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배를 타는 오빠가 아프리카 가봉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오빠가 입원한 강북삼성병원에서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울로 부산으로 고향으로 다니면서 집안일로 오빠문제 해결로 바빴던 기억들..... 지금 생각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우리 오빠가 예전의 오빠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오빠네를 병원에서 도우면서 보육공동체는 거기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픈 바람에 세상에 태어난지 두 달만에 이산가족이 되어 이모에게로 간 네 조카 이훈이와 삼촌네로 간 네 살난 여훈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또 헤어질 때는 내가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부모님이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나갈 때 느끼는 마음 꼭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내살박이 이훈이가 키우는 자라를 화장실에다 두었는데 함께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관심을 가져주던 환자와 보호자들, 집이 서울이 아니라서 불편하겠다고 걱정해주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따뜻한 병원에서 정들었던 사람들, 우리 여훈이, 이훈이에게는 이모도 외숙모도 엄마였고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하는 보육시설이구나! 가족공동체는 바로 보육의 연장이었습니다.

오빠가 어느 정도 나아져 가자 95년 2월부터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묵고 지내는 서울의 큰아버님택에서 집안일을 돕고 지내었습니다. 집안일에 숙달도 안되었는데 식구들 빨래랑 청소랑 밥하고 반찬 만들고, 식생활과 살아온 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꿈꾸어온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것, 많이 깨지고 많이 속상하고 다시 마음맞춰 살기 위해 애쓰고 하다가 12월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나이 서른인데 어느 곳 어느 하늘 아래 있어도 당당하게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

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당면현실을 파악해내고 풀어나가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면 이런 생활을 함께 나누고 훈련받는 공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똑똑똑. 지탁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현실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이런 일이 있을런지요?" 끝이어서 대답이 왔지요. 편집부일을 함께 하자구요. 기뻐합니다. 이제 나에게도 내가 하고픈 나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지금 제 앞에는 가족이 있고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나를 사랑으로 안아준 아니 내가 주인으로 선 지탁연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벗.....

박정애 / 편집부

오손도손에기방 전직교사

지탁연과 인을 맺은 지 만5년이라는 세월...

그 5년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순간순간마다 좌절과 낙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삶을 개척하여 왔다.

많은 동료, 선후배를 만났고 별 일 없는 한 내가 사는 동안 함께 할 인생의 벗

도 나이들이 마을 속에 새기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90년 추운 겨울날 산중턱에 자리잡은 행당동 오손도손에기방에 입사(?)하게 되어 조용관, 오윤정을 만나 함께 일하며 나누었던 그 시절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린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 교육, 지역의 일, 자모조직 등.....

서로 다른 교육관 때문에 의견차이로 인해 많이 다투기도 했다. 지역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자세 때문에 서로의 성격 때문에. 그래도 우린 늘 즐겁고 좋았다. 지금의 나는 그때가스럽다. 사회에 나와 아니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토록 마음을 터가며, 맞춰가며 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때만큼 좋을 수 있을까, 나의 소중한 벗들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이지 난 셋이서 열정적이고 신바람나게 일했던 그 시절이 진정 그림기만 하다.

그후 지탁연의 동지들을 한 둘 알게 되었고 이토록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과 일함이 또한 기뻐다.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해도 큰 일 있을 때 일년에 몇번 만나도 그들의 근황에 귀 기울이곤 했고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집에서 에 키우며 지역일만 하고 있는 나에게 그들의 안부는 나의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집에서 애를 키운다. 애와 함께 있는 시간은 괴로움도 있

지만 나에겐 너무 큰 기쁨을 준다. 그리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엔 둘째아이를 가질 예정이다. 내가 자식욕심이 있을 줄이야.....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에키우는 아줌마가. 사는건 마찬가지라고 에 키우는 아줌마도 왜 이리 삶이 분주한지.

지역에 틀어박혀 지역의 요구되는 일을 하면서 지탁연과는 무슨 인연인지 황미혜가 편집부일을 같이 하자 했을 때 난 제일 먼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지 않았구나, 나를.....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보육운동에 대한 감이 떨어져 내심 갑갑하던 차에 황미혜의 제안은 신선했고 조용관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 - 물론 남편과도. 에 데리고 다니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자신 할 순 없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자!

여담으로 애가 있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그 전은 무슨 일이든 달려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긴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든 하려 했는데 이제는 할수 없는 일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정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지탁연 일을 내가 좋아하는 지탁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즐겁다.

5년전부터 알게 된 나의 동료, 벗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전망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일게다.

지탁연 10주년을 맞이하며.....

김설이 / 진달래동산 어린이집 교사

지탁연 10주년, 선뜻 뭐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득 자원활동가로 진달래에 처음 와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던 생각이 납니다. 겨우 겨우 식판에 밥을 담아냈는데 아이들이 밥 먹으러 나오는 순간, 식판에 국그릇 놓을 자리도 없이 반찬을 놓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아찔했던 느낌.

그리고 참 많은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떨면서 이야기하던 자모회, 탁아법 투쟁을 이끌었던 자모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드려주던 자모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월급은 왜 올리냐'는 말로 기어이 교사들 눈에서 눈물을 뿜었던 자모회까지.

또한 우리가 10년동안 키워낸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산동네에서, 공단에서, 놀이터 하나 변변히 없는 삭막한 동네에서, 안타까워하며 정성껏 키워낸 수많은 아이들.....

돌이켜보면, 지탁연의 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모들에게 탁아법 투쟁을 하자고 할 때도, 같이 생각하고 움직일 지탁연이 있기에 가능했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신념도,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닌, 지탁연이 연구하고 검증한 것이기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어린이집만의 내용이 아닌, 지탁연의 내용을 가지고 만났기에 더 풍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탁연이라는 틀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보육시설수가 많아지는데 기여했고, 민보련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공부, 숫자공부, 심지어 영어공부까지 강요하는, 경쟁위주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즐거운 어린 시절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코 선생님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여러 보육교사들과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거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이끌어야 할 지탁연이 있기에 새로운 힘을 냅니다.

지탁연의 교사로 4년간 일하면서 저의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탁연과 따로 떼어서 '나'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일본 연수에 참여하면서

(1)

위양자 / 헤프는 동산 어린이집

지난 10월 24일부터 보름간 진행되었던 일본연수에 참가했던 위양자 씨의 일기를 통해 일본 연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일본연수기는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될 예정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길다면 긴 10년의 발자취를 가진 지택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해, 이제까지 몇 차례의 일본 연수가 있었지만 95년의 우리 연수팀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첫 만남을 시작했다.

부산(강숙진), 광주(박화명, 김경아), 군산(위양자), 교육연구부(서은희), 사무국(신현희) 6명은 서울과 대전을 오르내리며, 입고 갈 옷(개량한복)에서부터 먹을 것을 준비하기까지, 같은 일을 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서로에 대해 사귀며 가슴 설레는 출발의 날을 맞았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설레임 속에서 '드디어 일본으로 가는구나' 하는 순

간 TV나 영화에서 보던 배웅객이 없다는 쓸쓸함에 연수목적에 다시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연수일정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왔다. 아니, 이젠 뭐라고 하는지, 드디어 일본행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뒤를 이어 다행히도 한국어 안내방송이 다시 나왔다. 통역이 있다길래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본어지만 자신 있게 길을 떠났는데 이런 난감한 순간은 연수일정 내내 있었다.

구름 아래 도시가 보이다 말다 하더니 2시간여만에 도착했다. 김덕환 선생님과 한민족 문화재 참석차 먼저 오신 최현숙 회장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우리는 김치, 쌀, 심지어는 과일까지 든, 메고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가방들을 끌고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철을 탔다.

아! 여기가 일본땅이구나 실감하는 순간 우리만 빼고 다 일본말을 잘 하니, 그래도 우리는 모국어가 좋아서 우리말로 조잘조잘, 짹짹.

천왕사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아! 어제 또? 택시기사아저씨가 오른쪽에 딱 앉아 계신다. 처음엔 뭔가 고칠 것이나 만질 것이 있어서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인원이 모두 타고 출발하는 데도 그냥 거기 앉아서 가네. 그제서야 말로만 들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구나 생각하는 데 왼쪽 차선으로 택시가 막 달리고 맞은편 차들이 우리가 탄 차를 받으려고 달려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숙소에 짐만 내려놓고 (비공식)환영회장으로 출발했다.

오늘, 바로 역사적인 날 1995년 10월 24일 저녁.

역사적인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사람들에게 이렇게 푸짐한 불고기요리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희망의 문」, 「성애원」, 「성화보육소」, 「애신보육원」 관계자들이 미리 다 계셨고 「성애원」의 에다모토 선생님은 중간에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순간에는 항상 고기를 심각하게 드시고 계셔서 웃음으로 몰아넣었다.

땀속이 좀 행복해지려 하자 서로에 대한 소개와 노래로 즐거움을 더했다. 노래를 하면서 일본측 보육원과 부모들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연신 담배를 태우시던 「희망의 문」의 허구찌 선생님과 「성애원」의 에다모토 선생님, 「애신」의 김혜영 선생님만 기억되고, 그 이름이 그 이름같아 영 기억이 되지 않았다. 한국노래 '아침이슬'을 불러주신 「애신보육원」의

김혜영 선생님의 열창은 일본땅에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우리 일행도 답가를 하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재일교포들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조국, 나의 조국사랑에 대해 되돌아 보게 되었다.

즐거운 시간이 낯설지 않게 지나고 보육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서로 나누며 헤어진 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부터 이번 주간의 일정별 진행에 대해 듣고 짐을 풀었다. 잠이 들 것 같지 않았지만 잠 잘 채비를 했다. 내일부터는 짝(김경아)과 함께 일본생활을 헤쳐나가야 하는구나.

아침 8시에 「희망의 문」 이태영 보모가 데리러 온다. 그리고 「성애원(신현희, 강숙진)」, 「성화원(박화명, 서은희)」 이렇게 세 곳을 이틀씩 우선 가보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10월 25일 아침 8시, 이태영 보모가 왔다.

버스를 타고 천왕사역 근처에서 내려, 백화점 앞 뒤편에서 아직 단잠을 자고 있는 걸인을 보며 20여분을 걸어 골목으로 접어들어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엔 0세아와 병아보육1)을 위한 보육원이 있고 한쪽에 1-5세아 보육, 야간보육, 학동보육소가 있는 커다란 보육원 건물이 마주

1) 전염병 등에 걸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따로 보육하는 것으로, 다른 아이들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아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들이 활기차 보였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쓰" "안녕하세요"로 인신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나누고 원장님이 안내하는 교사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히구찌(법인 전무이사) 선생님의 사무실이며 교사회의실로 쓰이는 방에 안내되었다. 책임교사격인 보모들이 모여 간단한 소개와 회의를 하고 김경아 선생은 0세아 보육소에 나는 1-2세반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침 운동장에서 1-2세반 3반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진흙구멍이에서 침병대는 아이, 자전거를 타는 아이,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 등 자유롭게 놀고 있었다. 넓은 운동장이 「희망의 문」의 자랑거리라고 보모들이 짧은 영어로 설명해 주었다.

「희망의 문」도 혼합연령으로 반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0세아와 병아보육소가 별도의 건물(3층짜리)에 있고, 넓은 운동장이 딸린 건물 1층에 식당과 사무실(원장실), 야간보육소, 1-2세아반 3반이 있고 2층에 3, 4, 5세반이 3반 있는데다 학동보육소와 넓은 공연장이 함께 있었다. 3층에는 보모들을 위한 휴게실, 탈의실, 교재준비실, 회의실, 간이 주방 등이 있고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었다.

1949년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 처음엔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하다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보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건물은 86년에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한다. 약 10여년이 지났는데도 견고해 보이는 건물, 안전하게 설계된 구조를 보며 아이들을 위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곳은 「성애원」, 「성화원」 등과 같이 '자유보육'을 추구하는 곳으로, 특별히 계획하고 설정된 보육(설정보육, 계획보육)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 발달한다는 입장이었다.

점심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27-28일에 있을 캠프에 대해 들었다. 4월에 학기를 시작해 6개월 동안의 보육소 생활에 대한 점검과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가을에 1박2일로 3, 4, 5세가 떠나 함께 생활한다. 장소는 주로 자연(바다나 산 등)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곳,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고, 이번에 갈 와마야마산은 작년에도 갔던 대관광역시립 캠프장이라고 한다.

캠프 설명을 들으면서 장소에 대한 약도, 공간배치도, 우천시 대책, 숙소배치 등 섬세한 사항까지 검토하면서 참가 교사들이 자료들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서 자기 역할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체크하는 모습이 캠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니 아이들이 짝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줄 수 있구나 싶었다.

설명이 끝나고 다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마침 오후 간식시간이었는데 두

을 받고 숙소로 돌아왔다.

10월 26일 목요일, 「희망의 문」이 들췄다.

어김없이 8시에 이태영 보모가 데려왔다. 서둘러 길을 재촉하며 이것저것 말을 붙여봤지만, 교포3세로 한국어는 이제 배우고 있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를 못했다.

오늘은 내가 0세아 보육원, 경아씨가 1-2세반에 들어갔다. 0세아들도 0-11개월반, 12-15개월반으로 두반이 각각 2층과 1층에, 병아보육소가 3층에 있었고 산보를 위한 유모차와 끝차들이 충분하게 보였다.

12-15개월반에 가보니 부모님이 써주신 연락장을 보모가 읽어주며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좀 늦게 아파와 등원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파가 아이의 물건을 개인사물함에 다 차곡차곡 정리하고 자기 아이의 이불을 가지고 나가 햇볕에 널어놓고는 회사로 가는 모습이 보았는데 보기에 무척 좋았다.

12-15개월반에서, 어제 1-2세반에서 오전 내내 울며 매달리던 아이를 만났다. 의아해서 물어보았더니 새리장이라는 아인데 이제 16개월에 접어들어서 1-2세반으로 진급하기 위해 2주간의 적응기간에 들어갔다고 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놀러갔다 오다가 2



사내아이가 간식 먹을 자리를 다투다 서로 옷을 잡고 밀고 밀리는 싸움이 일어났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간식을 다 나누고 났는데도 계속 싸우자 작은 아이가 뭐라고 했고 그래도 계속 되자 그중 큰 아이가 뭐라고 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이내 두 아이는 손을 놓았다. 그때 보모가 이유를 묻고 중재했다. 둘도 화해하고 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장난을 놀았다.

혼합연령으로 반을 편성하는 주요한 이유가 1세아는 2세아에게 도움을 받으며 배우고 2세아는 도와주며 이해력이 길러지는 아동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며, 싸움을 통해 조절하고 중재하는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던 보모의 말이 실증적으로 보여지는 계기였다.

5시가 되자 아이들이 돌아가고 연장보육에 들어갔다. 경아씨와 나는, 「희망의 문」에서 지역에 혼자 사시는 분을 위해 매일 저녁 준비하는 도시락으로 저녁대접

주후에는 1-2세반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다른 아이들의 경우도 진급할 시기가 되면 다 이런 적응기간을 갖은 후에 반을 옮긴다고 한다. 이 아이는 현재의 반 분위기와 큰 아이들반의 분위기, 친구, 선생님들이 낯설어 울곤 한다고 설명했다.

0세아들은 1-5세아들보다 좀 일찍(오후 2-3시경) 집으로 돌아갔다. 그럴 수 있는 일본의 여러 조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러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가 일하는 여성들의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

5시가 넘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야간보육소(별도의 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12시-오후 10시까지 운영)와 학동보육소에서 아이들의 놀이감을 갖고 놀이방법을 배워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노인분들께 배달할 도시락이 카레밥이라고 해서 사뭇 기대를 하며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는데 환하게 불이 켜진 운동장에서 야간보육소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이곳의 운동장은 항상 아이들이 놀고 비어있을 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망의 문」이 지역 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저녁 도시락 배달이 현재 일본의 고령화문제를 실감하게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때 노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실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맛있는 카레밥을 먹고 돌아왔다.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은 가슴 설레

이는 캠프 가는 날.

이들동안 각각의 보육소에 두명씩 나눠 생활하다 캠프에는 6명이 함께 가게 되어 더욱 좋아하며 아침 8시 이태영 보모와 함께 「희망의 문」으로 출발했다. 각각의 가방에 이름이 적힌 주황색 끈을 단단히 묶고 모자도 챙기고 김치와 김도 챙기고 드디어 보육소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떠날 준비가 끝났다. 모든 짐들은 반마다 색깔이 다른 끈으로 묶어서 구별되게 해서는 봉고차에 가득 실어 놓았다. 우리가 달았던 주황색 끈도 보모용 가방이라는 의미를 담고있었다.

두명씩 줄을 서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20여분을 걸었다. 아이들도 점심이 들어있는 간단한 가방만 메고 있었고, 여전히 맨발에 신고 벗기 편한 운동화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일본은 국민학교 시절까지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혀 기르는 것이 관습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조금 걷는 동안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이들의 행렬을 보고 웃으며 격려해주곤 했다.

아! 우리가 탈 버스가 어디 있을까? 한참 후에 나타난 버스는 그야말로 대단히 높은 관광버스였다. 아이들이 줄을 지어 타는 동안 우리 일행은 내기를 했다. 이 버스는 이층버스일까 아니면 그냥 높은 버스일까? 타보면 알 걸 그 사이를 못참고 우리는 한국인인 우리들이 함께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소한 일에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타국땅에서 사흘째를 맞고 있었다.

안내원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앗! 의자가 무척 높은 위치에 있었다. 밑에 의자가 또 있나? 이층버스는 아니었다.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의자를 높게 만들었다고 한다.

곧바로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오오사카의 한산한 농가와 공장지대를 지났다. 호수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서 신기해 재잘대며 마냥 들떠 있었다. 아이들도 역시 신났다.

우리에게 신기하기만 한 이 버스(통로에는 보조의자가 달려있었고 보모들이 거기에 앉아서 양 옆의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이제는 서비렸다. 안내원의 말이 커다란 교통사고가 있어서 차가 정제되고 있었다. 하필이면! 아이들이 지루해할까 걱정이 되려는 순간 원장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난 뒤, 짜자잔 "후레쉬맨"이 TV수상기를 통해 방영되었다. 조용해진 차 안, 아이들의 눈동자가 한 곳에 모아졌다. 그런데 나도 빠질 수는 없지. 한국에서 본 후레쉬맨과 너무도 똑같았다. 말만 달랐다. 수입을 했으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들, 일본의 아이들이 작품의 예술성, 주제 등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레쉬맨이 다 끝나고 나서야 사고가 정리되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내원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앗! 의자가 무척 높은 위치에 있었다. 밑에 의자가 또 있나? 이층버스는 아니었다.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의자를 높게 만들었다고 한다.

수습되고 어느덧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캠프장 근처에 도착했다. 울창한 침엽수가 콧속부터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두명씩 줄을 서서 캠프장을 찾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도토리를 주워 비닐봉지에 담았다. 좀 걸어가니까 캠프장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나왔구나' 하며 속으로 안도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 산속으로 걸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캠프설명회때 캠프장까지 하이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연신 비디오크 찍는 원장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아이들을 따라 산을 올라갔다.

한사람이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 나있고 울창한 침엽수들이 곳곳에 넘어져 있었다. 숨이 차려고 할 즈음 가파르고 조금은 위험한 곳이 나타났다. 보모들이 줄을 선 차례대로 올라갈 뿐 무서워서 우는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낭떠러지 곳곳에서 있지도 않았다. 우리 일행만이 조마조마하며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며 함께 올라갔다.

나는 산을 오르면서 대조적인 두 아이와 사귀게 되었다. 한 아이는 6살 남자아인데 오는 동안 젖국은 장난을 많이 했던 친구고, 한 아이는 4살 여자아인데 조심스럽고 조용한 친구였다. 낭떠러지의 위의 비탈진 산을 오르면서 6살 남자아이는 무서워서 내 손을 부여잡고 농지를 밟고 발발 떨며 간신히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4살 여자아이는 조금 비틀거리 손을 잡아 줄라 치면 얼른 손을 떼고 땅을 기다시피

2) 희망의 문은 0세아 보육소, 야간보육소, 1-5세아 보육소에 원장이 각 1인씩 있어서 특성이 다른 점을 잘 보완하고 있었다.

올라가고 내리막길에서는 엉덩이를 땅에 대고 미끄러움을 타듯이 내려가서는 손을 탈탈 털고 다시 걸곤 했다. 참으로 귀여웠다. 무서워하는 낯은 남자아이도, 차분하게 어찌면 냉정하게 느껴졌던 여자아이도.

캠핑장이 눈에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우리는 바로 캠핑장으로 오지 않고 산을 빙 돌아서 온 셈이다. 이것이 캠핑의 중요한 경험이라고 한다. 보육소에서 6개월 동안 스스로 생활해온 것을 하이킹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정감을 하며, 앞으로 남은 학기동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아이들은 오면서 내내 두명씩 짝이 되어서 왔는데 6세-3세, 5세-4세로 서로 도와주고 배울 수 있는 관계로 부모가 짝을 지어주고 호응을 함께 한다. 이 짝을 "페어"라고 하는데, 4월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해서 5월경에 부모가 아이들의 성격, 활동력 등을 고려해서 정해준다고 한다. 페어의 개념은 「성예원」의 "그룹3" 개념과도 실천적인 맥이 닿는 것으로 자유보육(실천보육, 계획보육에 반대하는 보육)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다. 이는 혼합보육, 통합보육(장애아와 자연스럽게 함께 보육) 속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요구대로 생활하는 자유보육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방임으로 흐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 아이들 서로간의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단위로써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이는 우리가 가끔씩 바깥나들이나 식사때 비상시적으로 하는 짝의 개념이 좀더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관계로 형성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을 탈 때의 힘듦도 있고 아이들이 잠시 뛰어놀다 반별로 모여 앉았다. 기대하던 점심시간.

각자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도시락, 물통, 물수건통, 돗자리를 꺼내서 앉았다. 물이 귀한 일본이라 그런가 모두가 물수건을 준비해와서는 손을 닦고 도시락을 열었다. 일회용 도시락이 대부분이었고 과자 한쪽과 함께 우리가 초밥집에서나 볼적한 알록달록한 김밥(주먹밥)들이 들어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바퀴먹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 모양이다. 꼭 내가 무엇을 줄테니 너도 무엇을 주겠니 하는 서로간의 의사가 통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다 먹지도 못하는 것일지라도 물 한모금 안 준다.

바바라 부모가, 한 아이가 다 먹지 못하고 앉아 있어서 하나를 집어 먹는데 그 아이가 화를 냈다. 나중에 물을 나눠먹자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주면서 바바라 부모는 무섭게 쳐다보면서 주지 않았다. 결국 그 아이는 다 먹지 못하고 비렸지만 뱃터먹는다고 주지 않았다.

3) 성예원에서는 1-2세 혹은 3, 4, 5세 아이들이 여러 조건과 스스로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도 하여 5-7명의 활동단위를 갖는다.

점심을 다 먹고 아이들은 산에서 놀았다. 우리 일행은 산속에서 추워서 땀을 입고도 달달 떨리는데 아이들은 반바지에 잠바도 안 입고 신이 나서 놀았다. 가끔씩 콧물이 죽 나오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고 충분히 놀고 난 후에 숙소로 향했다.

숙소 광장에서 굴과 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숙소 안의 원형공연장에 모여 영화를 보았다. 이 시간도 평소 휴식시간이라 조용히 쉬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화관람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끝내는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숙소내를 자유롭게 다니며 놀았다. 우리 일행도 너무 추위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난방과 이불을 요청했다. 다행히 서로의 기후적 차이를 이해해서인지 난방이 되었고 열방의 아이들 이불을 빌려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우리들은 산을 오를 때의 놀라움과 의아스러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끼며 장점을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눈을 붙였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넓은 식단에 식탁이 놓여있었다. 식탁 하나에 아이들이 6명씩 부모가 1명씩 앉으면 식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대체식품으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들도 각자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들으며 가져간 김치



를 곁들여 맛있게 먹었다. 우리의 김치를 일본 부모들도 맛있다고 하며 함께 나눠 먹었다. 아이들도 추운 날씨와 재미난 놀이에 배가 고팠는지 밥을 세공기나 먹는 아이도 있었다. 식사시간에 추워서 옷속 속에 다리를 넣고 먹는 아이도 있었고 조는 아이도 있었다. 조는 아이들은 부모가 조용히 데리고 나가 세수를 하게 한 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칫솔로 칫솔질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 자유롭게 놀았다.

저녁 7시에 원형 공연장에 모였다. 노래와 손유희를 몇가지 함께 했다. 원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와 아이들의 외침과 함께 촛불점화를 하고, 기대하던 부모들의 연극 공연시간이 되었다. 불이 꺼지고 조명이 켜졌다. 숲속에서 곤충들을 보호하며 사는 바바라 할머니가, 공놀이를 하다 나비를 괴롭히는 두 아이에게 곤충을 보호해야 한다고 깨우쳐주는 내용을 가진 연극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기본틀로 해서 준비했다. 아이들과 우리 일행은 재밌게 보았다. 내일 바바라 할머니가 사시는 도토리가 많은

숲으로 초대 받는 것으로 연극은 끝났다.

다시 불이 켜지고 아이들과 우리 일행이 준비한 개구리타령을 함께 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보모나 아이들이 들쭉쭉을 지어 돌아가며 춤을 추었다. 손을 잡을 때 수줍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스럽고 귀여웠다.

오늘의 모든 순서가 끝났다.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우리 일행엔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목욕탕은 우리나라의 대중탕과 비슷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피로도 씻도 때도 씻고 일본의 온천이라는데 정말 그럴까를 연발하며 싸인 긴장과 피로를 씻어냈다.

평가회 시간이다. 아이들을 재운 보모들과 우리 일행이 모였다. 식탁에는 차, 음료수, 설탕, 초코렛, 과자 등이 수북했다. 식탁을 둘러가며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오늘의 반성회를 가졌는데 영화상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작년에 본 영화와 원작자가 같아서 믿고 선택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했다. 다음에는 꼭 영화를 본 후에 결정해야겠다고 반성했다. 우리 일행은 영화선택의 문제점에도 곧바로 상영을 중지하고 자유놀이로 바꿔 아이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중심으로 생각한 점이 좋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못다한 이야기를 내일의 교류회로써 미루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짐생각이 난다. 잠을 자야겠다. 잠이 잘 올 것 같다.

10월 28일, 캠프 둘째날.

아침 6시 숙소의 종이 울리고 개중에는 벌써 뛰어나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도 일른 일어났지만 벌써 아이들이 우리 방을 넘본다. 어젯밤 개구리타령이 너무 재미있었나보다. 어제 가깝게 사귀어 아이가 일른 뛰어와 "오하이오(아침인사)"를 하고 뛰어간다.

야외캠프장으로 산책을 나가서 모처럼 사진도 찍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런 데가 있을까 있을까. 아이들도 짐정리를 한 후 산보를 하고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였다. 6명씩 식탁에 앉자 식사가 시작되고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양치질을 했다. 식사가 모두 끝나자 바바라 할머니가 초대한 숲으로 동글이(도토리)를 줍으러 갔다. 그들을 지어 들쭉쭉을 서서 비닐봉지를 들고 노래를 하며 길을 따라 걷다가 중간중간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아이는 도토리줍기에 너무 열중해 그들에서 떨어져(짜이 없어진 것을 말해서 알았다) 보모가 찾아오기도 했다. 풀밭에서 메뚜기종류를 잡아서 넣은 아이도 있었고 솔방울을 주운 아이도 있었다. 도토리, 솔방울, 나뭇잎, 메뚜기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각자 이름을 써서 한 곳에 모아놓고 놀이를 했다.

동대문 놀이, 짝짓기 놀이, 술래놀이(나이나 특징별로 여러명이 술래가 되고 잡힌 사람들 그대로 서있고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야 풀린다) 등을 신나게 했다. 어떤 아이는 짜증

을 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재가 잡은 곤충이 궁금해 계속 다시 보고 가곤 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다.

오전내 도토리 줍고 놀이를 하느라 뛰어서 피곤이 느껴질 즈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다. 오늘 점심도 햄버거라기에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햄버스테이크였다. 시장이 반찬인지라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차에 실은 뒤 다시 버스가 있는 곳까지 두 명씩 줄을 서서 걸었다. 숙소를 떠날 때비가 약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사진도 한장 찍고 있으니 버스가 도착했다. 두줄로 천천히 차에 올랐다. 우리 일행은 금세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울창한 침엽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사카 시내 보육소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보육소에 도착하니 짐들이 도착해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가져온 도토리나 메뚜기를 보여주며 자랑스러워 하다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다.

작별에 대한 아쉬움은 언제나 있나 보다. 우리 일행은 회의실에서 따뜻한 커피와 케익을 먹으며 즉석사진을 한장씩 찍고 단체사진도 한장 박았다.

「희망의 문」가족들과의 교류회시간이 되었다. 2층 공연장에 보기 좋은 음식과 술이 준비된 식탁들과 양옆과 정면에 의자와 책상이 준비되어있었다. 우리 일행 6명과 「희망의 문」가족 60-70명(빠진 사람도 있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환

영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가 오갔고 각자의 느낌을 거창하게들 이야기했다. 이번 「희망의 문」에서는 다양한 보육(0세아 보육, 1-5세아 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병아보육, 학동보육 등)을 경험할 수 있었고 혼합연령과 자유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우리들의 막연함이 덜어졌고 앞으로 지탁연의 과제인 올바른 보육내용의 연구,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음식과 술을 나누며 어디에 있어도 올바른 보육을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음에 합의하며 건배를 했다. 한국에 연수경험이 있는 분들의 준비로 보육소 전 가족이 악보를 봐가며 한국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는 '바위처럼'을 답가로 불렀다. 이런 만남이 내게는 일본에 대해 우리 역사 속에서 막연히 가졌던 부정성에서 벗어나 착한 일본인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일본인이 많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에서 귀하게 여기는 전통상자와 즉석사진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선물로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류회를 마쳤다.

우리는 오는 길에 남은 흥매실주와 위스키를 쥘 것을 잊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식사후 남은 음식도 일회용 도시락에 담아 가져가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도 며칠동안에 배웠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편하게 돌아와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10월 29일 일요일, 처음 맞는 자유시간.

우리는 나라시를 보러 가기로 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지리를 잘 아는 이태영 부모와 한국말을 잘 하는, 만화 주인공 까치를 연상시키는 김광민(교포3세)씨와 동행했다.

에쁘게들 차려입고 동해사라는 절(신사)가 있는 나라를 향해 전철을 타고 갔는데 그곳에는 사슴들이 방목되어 있었다. 길에는 사슴주의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사슴의 먹이인 사슴과자를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샌베같은 과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사슴에게 과자를 자꾸 주는 것에 의아해 했었다.

오래된 나무들과 굉장히 넓은 공원, 큰 부처님을 보며, 그리고 일본에서 몇 안되는 큰 규모의 신사를 둘러보며, 문명국가에서 천황이 존재할 수 있는 의식구조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절을 둘러보고 찻집에 들어 감주를 한잔씩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감주와는 맛이 달랐다. 뜨거울 때는 그래도 괜찮은 데 식었을 때 일본여인들의 이상하리만큼 친절하진 맛이 느껴져 먹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다 먹고 이번에는 나라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들렀다.

일본은 박물관을 항상 개방하지 않고 때를 정해서 가끔씩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데 마침 개방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내부는 더욱 혼잡해서 겨우겨우 전시

된 물품들을 보고 나왔다. 전시물품들은 우리의 것과 많이 달랐고 중국의 한자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 일본이 박물관을 항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된 침략의 역사 속에서 전리물은 많지만 독자적인 고유의 문화유품은 적은 탓이 아닐까? 그중 우리 조선에서 가져오고 배워온 것이 많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며 내심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져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시장에 들어 삼겹살, 상추, 풋고추를 사왔다. 나라에서 먹은 일본의 정식 우동이 영 맛이 없어 거의 먹지 못했는데 우리의 김치와 고추장 맛으로 삼겹살을 구워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이태영 부모와 손짓 발짓으로 많은 마음을 나누었다. 이태영씨에게도 미지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현재의 삶에도 열심이였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다.

한국에 가고 싶다. 실을 때도 있지만,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잘 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조국.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잠자리에 들었다.

견급△식

만5세아 조기입학을 유보방침 철회하기로

만5세아 조기입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여론이 빚발치자 교육부에서는 이를 유보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얼마전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여 '만5세아 조기입학 반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이 성명서를 전면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회의에서는 현재 만5세아 조기입학 반대에 대한 2만여명의 서명지를 갖고 국회에 청원을 한 상태이다.

성명서

지난 11월 12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11일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만5세 아동 취학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국민학교 만5세아의 조기 입학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본 연대회의로서는 환영할 일이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관계자들 또한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변인인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발표하였던 만5세아 조기입학 유보의 방침이 발표된지 1주일도 안 되어서 국회 교육위에서 은밀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급기야는 오늘(20일)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대부분의 교육학자와 유치원 교사, 그리고 초등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반대하여 왔으며, 모든 공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본 연대회의의 결성에서 보듯이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여 입법예고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만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문제에 대해

서 이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탁상행정이며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도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를 무마시키면서, 동시에 교육위 의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행위는 국민과 언론을 우롱하는 비열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 정치인들의 신의없는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공공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 그동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야당위원들이 포진해 있으며, 국민회의 소속 이영권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의 반대가 많았던 만5세아 조기입학문제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4당 간사들이 모여서 상정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저 국민학교의 빈의자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 생년월일순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굳이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언론에 커다랗게 발표한 민자당, 그리고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표결 처리해버리려는 여당위원과 이를 묵인하는 듯한 일부 야당위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며, 오늘 있을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오늘 국회 교육위의 행위와 민자당의 국민 속이기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연구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미래유아교육학회, 부산 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 참교육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 아이, 마음놓고 맡길 순 없나요?

이은경 / 영삼어린이집 자모

지난달 말에 영삼어린이집이라는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라고 하면서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린이집 문제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국공립시설뿐 아니라 모든 보육시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심사숙고하다가 보내주신 분의 글과 함께 국공립시설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함께 실습니다.

영삼어린이집이 매체를 탄 이후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하는 의욕을 잃었다고들 하십니다. 얼마전 양천구에서도 국공립 원장이 부식비를 착복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묵묵히 보육사업에 일하시는 국공립시설의 원장들은 한꺼번에 비리를 저지른 원장과 똑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국공립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이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영삼어린이집(634-7859)에 두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니다.

얼마전 TV 시사매거진2580 행촌어린이집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집의 문제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들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동안 원장이 구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교재비, 소풍비, 캠프비를 과다하게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에게 어린이집 운영유지비인 전화요금까지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는 가을 소풍비 정산을 요구하면서 47명 정원인데 41명으로 정산해줘 확인과정에서 과원이 55명인 것도 확인하면서 과원인 보육료를 원장이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청 가정복지과에 민원신청하여 95. 3 - 95. 9까지 쟁건 과원보육료 책임지고 위탁업체인 한국사회복지재단 영등포복지관에 경고로 마무리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식, 간식이 형편없었지만 일반 사립보다 적은 보육료 때문이라고 문제제기도 하지 못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 1인 부식비(간식포함) 1,301원이며 영아는 400원 간식비지원까지 된다는 것과 선생님들에게 1일 1,000원의 식대비가 지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부설어린이집 식단표를 도움받아 식단표를 바꾸게 되었

영삼어린이집 식단 비교표 (현월 25일 기준)

	전식단	변경후 식단
과 일	4번	18번
우 유	오후	오전, 오후
과 자	23번	주지 않음
빵	8번	2번
라 면	2번	주지 않음

월급식비 47명 기준 $\times$ 25일 = 1,698,675원
 1일 아동 급식비 $1,301 \times 47 = 61,147$ 원
 1일 영아 간식비 $400 \times 7 = 2,800$ 원
 1일 교사 부식비 $1,000 \times 4 = 4,000$ 원

습니다. 원장도 공석인 상태였고 원장이 회계에 대해 몰라 위탁업체에서 보육료 입출금을 맡아서 운영을 해온 상태이므로 식단표를 부모들이 바꿔달라고 제의하여 식단운동을 하면서 47명 기준 월 1,698,675원 정도를 아이들에게 투자해줘야 하는데 전임원장말을 빌면 실제 바뀐 식단으로도 월 일백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수업준비에 필요한 교재교구 요청도 거절하고 심지어 색종이, 도화지 조차도 거래 문방구점에 지급정지를 하여 선생님들이 다시 오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위탁업체인 영등포복지관에 문제제기하고 1년 예산중 교재교구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내 놀이기구가 34%정도 밖에 안되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80만원정도만 집행이 되고 더군다나 전년도 이월금액이 712만원이 이월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올해에 집행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신임원장이 오게 되어 위탁업체가 통장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부딪치면서 가정복지과에 감사요구를 부탁했는데도 바빠서 못한다는 이유와 정기감사 나갈 계획이라고 하며 어머니의 의도대로 어머니의 의도가 옳기 때문에 원장 사직하고 위탁업체 경고공문 보낸거 아니냐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위탁업체조차도 아이들 주·간식비가 얼마 드는 정도를 모른다고 하여 직접 와서 3일치씩 장을 봐주고 가니 1주일에 얼마정도 드는지도 모르냐고 질문을 하니 한달이 지난 뒤에 계산할 생각이라고 하여 한달 간·주식비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11/17 구청장님과 면담 요구사항

- 위탁업체 통장 인수인계시 문제점
 - 전년도 이월금액 7,120,000원과 올해 집행잔액 없음
 - 기존 통장이 아니라 새로운 통장 개설
- 원장의 개인자질(위탁업체와 원장과 통장 인수인계시 어린이집 상황을 얘기하고 부산대 어린이집 식단표를 운영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고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 다음날로 선생님들에게 식단표 바꾸겠다고 하여 영양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오전에 꼭 우유여야 되냐고 하여 오전에 아침 안 먹고 오는 아이가 많다고 하니까 오전에 아침도 안 먹

이고 방치하려면 예를 왜 냈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은 먹는 것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그동안의 어린이집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원장 본인의 의욕만 앞세워 취사부 아줌마와의 관계에서 인사권 남용)

- 교사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인정해달라(학부모, 선생님, 시설종사자(취사부), 원장)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되어 엄마들이 부담하고 원장은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써여져야 한다.

결과 : 감사실장 함께 불러 어머니들이 납득이 가도록 감사요청해주셨고 어린이집 운영위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감사실장과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줌

면담 후 복지과 계장이 민원인 확인하는 절차에서 아이가 몇살이고 언제부터 다녔는지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하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얘기까지 떠벌임. 면담자중 유아정보지 기자 1명 참석한 것을 민원인 확인하면서 알고 기자에게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다 맞대응하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함.

9/27 문제제기하고 현재(11월 말)까지 상황입니다.

제 입장은 어린이집은 절대 원장의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자모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원장의 독선과 인사권 남용을 막아야 하며 정부지원금과 엄마들이 내는 보육료가 제대로 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주 : 11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신청하였다가 연기되었던 시설 보수공사를 이번 12월 중순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니 인근시설로 아이들을 분산수용하라고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보수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음과 2월 28일까지 75일간이나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구청측의 이야기에 어리둥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3동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시안)

1. 목적

영3동 어린이집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구이다.

어린이집 자치기구로 교사와 학부모가 보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수렴이 보장되고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취사부), 원장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2. 성격

영3동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3. 구성

교사, 시설종사자, 학부모, 원장으로 구성된다.

4. 위원 정수

교사, 시설종사자, 원장 학부모 전체가 기본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와 같은 비율로 존중되어야 한다.

5. 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계속하여 3년까지 가능)

6. 위원의 선출

반별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와의 협조를 토대로 보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학부모위원회는 반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민주적인 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반별회의를 통하여 위원선출을 하는 것이 좋다.

7.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기능

• 영3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아외 및 현장학습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선정 및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처리

안전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 회의소집

회의소집공고와 안전제시는 적어도 2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회에서 상정한 내용은 보육주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발의되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말에 운영위 결과에 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학부모 및 교사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위의 운영시안은 하나의 예시로 다분히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체계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이은경씨의 말을 빌리면, 본 시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기본토대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 꼭 위의 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국공립 운영의 투명성과 연계성을 지니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영삼어린이집 사태를 보면서

(이창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얼마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된 내용과 '유아정보 12월호'에 기재된 영삼어린이집 경우에 관해 글을 써달라는 연합회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 기사가 나온 줄곧 난 그 문제에 관해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는 요구였다면 난 처음부터 거절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사회의 지지보다는 지탄을 받아왔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보다 귀한 내 두 아이를 작은 놀이방에 보내는 학부모이기도 하다. 아무리 자신있게 살아가는 부모라 하더라도 내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은 나에게 죄의식과 고마움, 기대와 분노, 욕심과 좌절 등의 복잡하고 미묘한 느낌을 경험케 했다.

내가 두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느낌은 분노보다도 서글픔과 답답함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 원장, 부모 그리고 교사가 어디까지 불신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본 듯 했고, 그 상황을 보도하는 TV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야기해보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구 마이크를 갖다 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서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슬펐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대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할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것은 분명 우리 어른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 문제를 인식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제를 보는 원장으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어린이집이 빨리 정상화되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교사들이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장으로서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삼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된 사항 중 세번째 사항인 '자모회 대표, 원장, 7사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협의체가 아닌 의사결정기구로 승인해줄 것'이라는 내용은 참으로 좋은 내용이다. 그러나 그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제안을 하게 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각자 역할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장이 없다면 몰라도 새로 오신 원장이 계시면 그 원장에 대한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교사와 부모님들은 그 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을 낼 때이고, 부모들은 내 대신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는 교사에게 협력과 존경을 아끼지 않을 때다. 그것은 부모가 교사나 원장보다 부족해서라기보다도, 하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주시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서로 역할에 대한 존중과 깨어진 신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이집은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의 요구, 부모들의 기대의 많은 부분을 현재의 어린이집 상황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한사람으로 그것이 과연 아이들 입장에서 올바른 요구인가를 되묻고 싶을 때도 많다. 보육시설에 관한 변화의요구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다. 그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 보육 방법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이견이 많고 기대에 대한 차이가 많다.

이 길이 정말 '아동을 위한 길'이라고 누가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할 때가 많다. 우리 어른들이 '이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지마다 주장하고 열심히 일들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는 슬픈 일이 될 때가 많다. 보육정책을 세우는 일에서 부터, 교실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나 생각한다.

영삼어린이집의 경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다.

변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성 사이의 간격은 원장, 부모, 교사들의 개인적 양보를 통해서 좁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관철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어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의 입장'으로 지혜를 모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망가있는 자리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시에를

위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지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것이다. 빛나는 숲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의 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가족이다.

위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보겠지만, 우리에게 땅은 신성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신성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신성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 속에 비추인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안개가 달아나듯이 홍인은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었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는 우리에게도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꼭 같다는 우리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들은 한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대지는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들은 또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들은 거리낌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잊혀지고 만다. 백인들의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빼앗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그들의 식욕은 대지를 삼켜버리고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방식은 당신네와는 다르다. 당신네 도시의 모습은 홍인의 눈에 고통을 준다. 백인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 없다. 봄일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홍인이 미개하고 무지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시의 소음은 귀를 모욕하는 것만 같다. 쪽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못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나는 홍인이라 이해할 수가 없다. 인디언은 연못 위를 쓴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대기가 홍인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백인들은 자기가 숨쉬는 대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날 동안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악취에 무감각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당신네에게 땅을 팔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공기가 소중한, 또한 그것은 그것이 키워주는 온갖 생명과 영혼을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숨결을 베풀어준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숨도 받아줄 것이다. 바람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간수해서 백인들도 들꽃들로 향기로워진 바람을 가서 맛볼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개인이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내는 철마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소보다 어쩌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살들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땅 위에 타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타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거미줄의 한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거미줄에 행한 일은 곧 자신에게 행한 일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당신들이 마련해준 곳으로 가라는 당신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우리는 따로이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이 나날을 보내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여생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 많지도 않은 몇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언젠가 이 땅에 살았거나 숲속에서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한때 당신네만큼이나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종족의 무덤을 슬피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피해야 하는가? 부족이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는 간다. 자기네 하느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고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이다. 당신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듯 하느님은 인간의 하느님이며 그의 사랑은 홍인에게나 백인에게나 꼭 같은 것이다.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져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른다. 계속해서 잠자리를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 당신들은 황무지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사라져갈 때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

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이 땅과 흥인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해준 하느님에 의해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운명은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언제 물소들이 모두 살륙되고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숲의 오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로 가득 차고 곡식이 무르익은 언덕이 전화선으로 더럽혀지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덩불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독수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날랜 조랑말과 사냥에 작별을 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끝이자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당신네가 약속한 보호구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짧은 여생을 이어갈 것이다. 마지막 흥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기억이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가 될 때도 이 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종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 속에 간직해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이를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이 글을 미국 서부지역에 거주하던 두아미쉬-수쿠아미쉬족(族)의 추장 시애틀의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이 행해진 것은 1854년, 미합중국 대통령 피어스에 의해 파견된 백인 대표자들이 이 인디언 부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땅을 팔 것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의 워싱턴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 토착민들의 실태를 차지하는 대신에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보존지구를 주겠다는 것이 백인정부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움집이 정대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시애틀 추장은 이 글로 답하였는데, 거의 시적이랄까 할 만한 이 연설문은 오늘날 환경과 자연에 대한 분별없는 파괴의 결과로 인하여 전인류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게 된 시대에 오히려 생생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꽃이 사람보다 따뜻할 때」에서 다시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보육계몽양

'96년 지탁연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지탁연에서는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사교육과 정기총회를 갖는다.

일시 : 1996년 1월 3-5일

장소 : 송실대 사회봉사관

회비 : 서울경인지역 교사 35,000원

지방지역 교사 30,000원

자격 : 지탁연 회원교사

내용 : 교사조직과 관련한 전망과 토론, 소모임 강화를 위한 분반프로그램, 교사의 건강관리, 제11회 정기총회 등등.

교사 공개채용 안내

구립 명성어린이집에서는 96학년도 결원교사의 보충으로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한다.

1. 채용인원 : 0명
2. 지원자격 : 2년제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
2급 이상의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관 및 사명감이 뚜렷한 자
3. 서류접수일자 : 1995년 12월 26일 - 96년 1월 5일 6시까지
4.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교원자격증 사본 각각 1통씩(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1통)
5. 접수장소 : 명성어린이집 사무실(중랑구 면목6동 131번지, 전화 : 02) 207-7751)
6. 전형일시 : 1996년 1월 6일(토) 오전 10시
7. 전형장소 : 명성어린이집
8. 전형방법 : * 면접
* 실기 : 이야기나누기(기본생활습관)
9. 합격자 발표 : 1996년 1월 9일(화) 개별통지함

보육교사교육훈련원 안내

'96년도 3월이던 전국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일제히 개강을 하게 됩니다. 본지에서는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전국 양성기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양성기관마다 접수일정이나 전형방식 등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국제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구로구 시흥1동 121-8	02)806-0093
그리스도신학대학부속 보육교사교육원	강서구 화곡동 산204	02)698-8641
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	서초구 양재동 114-2	02)572-8243
덕성여대부설 평생교육원내 보 육시설교육훈련원	종로구 운니동 114	02)765-1846
동덕여대부설 여성사회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하월곡동 23-1	02)913-2001
명지대부설 사회교육원내 교육 훈련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02)307-6171
서울성장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 련원	성동구 옥수동 201	02)299-3400
서울전양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서초구 우면동 13-2	02)579-6211
서울YMCA보육시설 종사자교육 훈련원	강남구 논현동 225-6	02)511-7788
서울YMCA종로보육종사자교육 훈련원	종로구 종로2가 9	02)732-8757
서울YWCA보육시설종사자교육 훈련원	중구 명동1가 1-1	02)779-4900
서일전문대학부설 보육교사양성 과정	중랑구 면목8동 49-3	02)433-0015
숙명여대 평생교육원내 보육시 설종사자교육훈련원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02)710-9141
아세아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성동구 홍익동 150	02)296-1947
중앙대 산업교육원	동작구 흑석동 221	02)810-2714
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 원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02)929-5004
충신보육교사양성원	서초구 방배동 981-14	02)715-3006
칼빈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용산구 청파동 3가	02)715-3006
한국어린이보육시설 종사자 교 육훈련원	성북구 돈암동 산 7	02)928-7086
한국어린이육영회부설 연수원	송파구 신천동 7-12	02)424-3033
한양대 평생교육원	성동구 행당동 17	02)291-1479

지	방	
인예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173-1	032)435-7735
경기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32-3	0331)35-2290
수원여자전문대학부설 보육시설종사자 교 육훈련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	0331)290-6251
새마을중앙연수원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 17-2	0342)701-6901
동우전문대학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2	0392)32-6551
충북대학교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시설종 사자교육훈련원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산 48	0431)61-2682
대전실업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전시 동구 자양동 225-2	042)629-6105
충남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충남 논산군 연우읍 동산리 880	0461)741-4183
호서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0417)565-1812
전북대부설 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0652)70-3825
전주우석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동 490	0652)290-1114
송원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광주시 서구 광천동 199-1	062)365-0045
장로회광주신학교부설 보육시설종사자교 육훈련원	광주시 북구 본촌동 산 70번지	062)571-7251
영진전문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대구시 북구 북현동 218	053)952-1101
신일전문대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91	053)754-0361
경북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256	0546)456-1350
부산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512-0311
부산YWCA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7	051)441-2221
성모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224-22	051)819-8001
아카데미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3동 356-45	051)864-1265
경남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31	0551)98-8600
단우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52	0556)74-7011
울산대학교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47	0522)77-7011
전주산업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0591)52-2378
창원전문대부설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 련원	경상남도 창원시두대동 196	0551)82-1313

아기궁둥 물리 - 장작 아동극 뮤지컬

원 작 : 김수정 연 출 : 구호주
 음 악 : 강상균 안 무 : 서루미
 조 명 : 김영주 출 현 : 이동제, 장인규, 언경은, 최원석, 김혜경, 김미영

줄거리

막이 오르면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긴급사태가 벌어진다. 갑자기 한강으로 떠내려 온 거대한 뱃산땡어리, 그 속엔 우리의 친구 물리가 잠들어 있다. 뱃산이 녹으면서 물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고갈동 아저씨네 집으로 숨어들게 된다. 그 곳에서 사귀는 철수와 영희, 물리를 빌려 쳐다보듯 하는 길동이 아저씨. 계속되는 물리의 말쑤, 그걸 막으려는 길동이 아저씨의 노력. 이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시간안내

1. 기 간 : 12월 14일 - 1월 14일
(매주 월요일은 휴관, 24,12일은 쉽니다)
2. 시 간 : 평일 (단체는 11시, 일반 3시) / 토,일요일 (1시, 3시)
방학기간 중엔 평일도 (1시, 3시)
3. 관람료 : 단체 및 가족회원 (3,000원), 일반 (4,000원)
4. 단체예약은 10일전에...
5. 문의처 : 원당소극장 (0344)965-3344 / 965-443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참여연대에서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법률구조의 활동으로 1995년 12월 11일부터 사법감시센터 내에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방객 및 우편접수민원은 서류접수로 한정하고 직접상담은 월요일 오후 5시-7시 사이에 한다. 법률상담실의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참여연대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된다.

전화 : 02)796-8364

팩스 : 02)793-4745 천리안 나우컴 하이텔 PSPD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우편번호 140-012

•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소송시에 사정이 어려운 시민의 경우 대한법률의 법률구조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사학교육원 유아국악교육과(국악과) 1996학년도 1학기 입학안내

명지대에서는 국내 최초로 어린이 국악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교육으로, 어린이의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시한다.

우리의 감각과 정서가 담긴 국악을 유아기부터 바탕을 만들어주는 국적있는 음악 교육의 현장(지도자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1년과정 : 국악이론, 장구실습, 국악동요, 리듬합주, 유아심리

등록금 : 40-50만원 정도

입학자격 : 유치원교사, 원장, 국교교사, 유아교육과, 국악과 2년이상 졸업자나 그에 동등한 학력

원서교부 및 접수 : 1996년 2월 5일 - 29일(교학과)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3매

문의처 : 교수실(300-1467, 309-1116, 376-3779)

「우리네 아이들」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관심있게 보고 조언을 해주실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로서, 「우리네 아이들」을 읽고 난 소감, 평가 등을 원고지 8매 이내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전체에 대한 평이 아니어도 됨).

모니터요원은 매월 발행되는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자신이나 주위의 의견, 생각 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네 아이들」구독시 50% 할인혜택과, 본회의 모든 자료 구입시 회원가로 할 인하여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우리네아이들」 편집부 앞

보내실 때 : 보내시는 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직업(직책)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간 : 언제나 모니터요원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본 연합회 사무국 편집부로 글을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식과 △식

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 활용에 대하여-

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995년 11월 21일 종로성당에서 전국민보련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 행하는 시책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국민연금기금 용자책임데 지난 3년간 시행된 시책이 일정한 성과와 더불어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기에 중간평가를 하고 이 것이 남은 기간동안 개선책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먼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 가톨릭대 교수)과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숙희 전국민보련 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상은(보건사회연구원), 배병준(복지부 사무관), 신미자(새싹어린이집 원장)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김교수는 우리사회가 민간보육시설을 보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기대하는 것과 영리시설로 인식하는 이중적 경향에 대해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어서 한회장은 국

민연금기금 용자의 시행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리한 후 개선방향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은 첫째, 보육시설 설치자금 활용에 대한 중간점검과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 둘째,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 넷째 이윤상환부담금을 인하할 것 등이다.

지택연 10주년 축하잔치

11월 26일(일) 오후 2시부터 장장 네시간동안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1부는 남미영 부회장이 사회를 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격려사, 슬라이드 상영, 출판물 소개, 감사패 증정, 모금 전달식 등이 이루어졌다.

2부는 김정옥, 고정미 두 사람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길놀이와 흥겨운 시작으로 봉천지역과 서울경인지역 자활대표자회의, 전직교사, 전북지역 교사들이 나와 노래와 춤 등을 선보였으며 감사패를 받은 이들과 역대 회장들을 무대로 올려 도전 15곡을 진행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마련하였고 2부가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다과회가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활동 자료집이 발간, 배포되었으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0명 정도 참석하였으나 보다 많은 전현직교사들의 참여에 대한 아쉬움과 지택연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참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연대회의)에서는 11월 18일 출국하여 26일 귀국하기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모임에 참석하고, 내년 1월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정부와 토론할 핵심사안을 검토하였다.

연대회의에서는 이기범(숙대 교수), 노혜련(숭실대 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실무분과모임에 참석하여 민간보고서의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하였으며, 연대회의 명의로 96년 5월 어린이달을 기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대한 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연합회 11월 활동일지>

11/15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장회의

교육단체연석회의

교육연구부 모임

16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교육연구부 모임

17 여연 정사위

19 서경지역 자활대표자회의

영아건강교사교육

21 교육연구부 모임

그림책읽는 교사소모임

23 편집회의

26 지택연 10주년 축하잔치

29 교육단체연석회의 주최 '교육운동과 조직운동' 교육 참여

12/ 1 여성평화의 집 송년회

3 영아건강교사교육

4 편집회의

서경지역 책임교사분과장회의

5 교육연구부 모임

7 서울시 이해찬 부시장 면담(최현숙 회장)

서경지역대표자회의

9 지방여성의원교육 참가(최현숙 회장)

사회복지소모임

12 지방지역대표자회의

13 교육연구부 정기모임

서경지역 평교사분과장회의

14 여연 임원회의

총회준비위원회 모임

수련회준비팀 모임

15 여연 정기이사회 및 송년잔치

16 탁아소별곡 출판팀 모임

17 영아건강교사교육

18 서경지역 책임교사분과장회의

19 지방평교사분과장회의

20 총회준비위원회 모임

21 서경지역대표자회의

22 편집회의

서경지역 자활대표자회의

편집부에서

* 96년에는 2월 1일에 찾아뵙니다.

그동안 저희 「우리네 아이들」을 아껴주시고 정기구독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매번 기획할 때마다 새롭고 빠르고 확실 모습으로 만나뵈려고 했지만 욕심으로 그치고 마는 적이 너무 많아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스스로에게 안스러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까요? 96년 신년호는 2월 1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는 여러분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호는 쉽니다.

「건강하게 삼시다」가 편집부의 실수로 이번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교실」도 이번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팩스로 원고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편집부에는 도착하지 않아 다시 받아보길 기다리다 그냥 다음호를 기약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집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워서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미리숙여 양해합니다. 죄송해요...

* 자료회원 회비를 내주십시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경자님, 연락주세요.

한경자님께서 11월 29일자로 국민은행에 입금하신 10,000원의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택연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제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그리웠던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 송풍이 트인다. 기쁘다.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년 신년호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 예란

* 95년을 마감하며
지택연 식구 모두들 행복하세요. - 정애

* 역사는 묻혀지지 않는다.
95년도 연젠평가 역사 위에 서겠다.
지택연 식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 해민

* 이번호에는 유난히 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종이 위의 내 이름이 낯설군. - 미혜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
어둡고 무거운 기억일랑 훌훌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 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의/탁/의/△/연/업/의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천리안 회원 ID:GTYID

펴낸이: 최현숙

몸은이: 주혜민, 강애란, 박정애, 황미혜

펴낸날: 1995년 12월 28일

판매가 : 3,000원